

정책 2021-17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 자격제도 및 보행지도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

2021. 10.

본 보고서의 연구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진

연구책임 : 서원선(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연구개발팀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김호연(강남대학교 중등특수교육학과 교수)

이선화(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연구개발팀 부연구위원)

자문위원

이 상 훈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팀장)

한 태 순 (한국보행지도사협회 보행지도사)

김 영 일 (조선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정 상 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도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 주임)

발간사

보행지도사(Orientation and Mobility Specialist)는 시각의 손상으로 이동에 제약이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전문적으로 보행을 지도하는 전문가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보행능력 향상은 재활의 성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지도사의 체계적 관리와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는 미흡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부터 보행지도사 양성 과정이 개시된 이후 보행지도사 자격, 양성 체계, 전문성 유지 방안, 시장 조사 등 보행지도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나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었습니다. 이에 보행지도사 자격제도 및 보행지도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보행지도사 자격제도 현황 및 보행지도서비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보행지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도움으로 진행하였으며 기본적 인적사항, 보행지도업무 현황, 보행지도사 자격제도 개선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보행지도서비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행지도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행지도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각장애인 당사자 및 보행지도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보행지도사 교과과정 개선, 보행지도사 실습 강화, 보행교육 확대, 기존 복지서비스 활용을 통한 보행지도서비스 활성화 등과 관련된 정책 개선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본 연구가 보행지도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해 중복시각장애인 교과 추가, 전맹시각장애인 보행지도 강화, 실습 의무화와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행지도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보행지도서비스 추가 수당 지급, 맹학교를 통한 보행교육 확대, 개별 보행지도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된 정책을 구축하는데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10월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최 경 숙



➤ 목 차

요약	1
I.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관련 선행연구	2
3. 연구범위	5
4. 연구방법	6
5. 연구수행체계	7
II. 국내외 보행지도사 자격 제도	10
1. 우리나라 보행지도사 자격 제도	10
2. 유사 자격증 제도	12
3. 해외 보행지도사 자격 제도	17
4. 시사점	25
III. 보행지도사 자격제도 및 보행지도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28
1. 연구의 개요	28
2. 연구 결과	31
IV. 보행지도사 자격제도 및 보행지도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47
1. 연구 설계 및 질문의 개발	47

2. 자료 수집 과정 및 절차	48
3. 자료 분석	49
4. 연구 결과	50
5. 시사점	58
 V. 결론 및 제언	 60
1. 보행지도사 교과내용 및 보행지도사 관리 개선	60
2. 보행지도 교육환경 개선	63
3. 보행지도서비스 인프라 확대	69
4. 기존 복지서비스 활용	71
 참고문헌	 73
부록	75

표목차

<표 I-1> 우리나라 보행지도사 필기 자격검정시험 과목	4
<표 II-1> 우리나라 보행지도사 주요 과목	11
<표 II-2> 우리나라 보행지도사 필기 자격검정시험 과목	12
<표 II-3> 점역·교정사 검정 과목 및 자격유형별 배점 기준	13
<표 II-4>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	15
<표 II-5> 언어재활사 1급 자격시험 기준	16
<표 II-6> 언어재활사 2급 자격시험 기준	17
<표 II-7> 미국 ACVREP 보행지도사 자격 시험 세부 내용	19
<표 II-8> 일본 국립장애인재활원학원 교육과목	24
<표 III-1> 인적 사항	29
<표 III-2> 설문지 구성 및 내용	30
<표 III-3> 보행지도사 자격 취득 시점	32
<표 III-4> 보행지도서로서 현재 근무 여부	32
<표 III-5> 보행지도사로 일하지 않고 있는 이유	33
<표 III-6> 현재 보행지도사로 일하지 않는 이유	34
<표 III-7> 보행지도 경력	35
<표 III-8> 보행지도사의 근무 기관 유형	36
<표 III-9> 보행지도사 자격 취득 이유	37
<표 III-10> 보행지도사 자격 취득 이유 (기타)	37
<표 III-11> 보행지도 시 좋은 점 (중복응답 문항)	38
<표 III-12> 보행지도 시 한계점 (중복응답 문항)	39
<표 III-13> 보행지도사 필기시험 개선 의견	40
<표 III-14> 보행지도사 실기시험 개선 의견	41
<표 III-15> 보행지도사 적합 전공 (중복 응답 가능)	42
<표 III-16> 보행지도사 취득 후 추가 교육 필요 인식 정도	43

<표 III-17> 보행지도사 취득 후 요구되는 교육 내용 (중복 응답 가능)	43
<표 III-18> 보행지도사 배치 기준에 대한 인식	44
<표 III-19> 보행지도사의 능력에 따라 업무가 적절하게 할당되고 있는지	45
<표 III-20> 보행지도 분야 발전 요구 의견	46
<표 IV-1> FGI 질문 내용	47
<표 IV-2> FGI 참여자 일반 사항	48
<표 IV-3> FGI 분석결과	50
<표 V-1> 맹학교 초등부 교육과정 시간표	64
<표 V-2> 맹학교 중등부 교과과정 시간표	65
<표 V-3> 맹학교 고등부(인문반) 교과과정 시간표	66
<표 V-4> 맹학교 고등부(이료반) 교과과정 시간표	67
<표 V-5> 안마사 자격 취득교육 과정	68
<표 V-6> 미국 CCRC 주요 서비스 종류	71



↘ 그림목차

[그림 I-1] 연구수행 체계	8
------------------------	---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보행지도사(Orientation and Mobility Specialist)는 시각의 손상으로 이동에 제약이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전문적으로 보행을 지도하는 전문가임(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20). 시각장애인의 보행능력 향상은 재활의 성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지도사의 체계적 관리와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는 미흡함.
-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부터 보행지도사 양성 과정이 개시된 이후 보행지도사 자격, 양성 체계, 전문성 유지 방안, 시장 조사 등 보행지도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나 조사가 실시되지 않음. 또한 보행지도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지도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부족함. 이에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 자격제도 및 보행지도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지도사 자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 보행지도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임

2. 관련 선행연구

-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orientation and mobility)이란 시각장애인이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감각과 인지적인 능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자신과 환경의 관계를 이해하면서 현재의 장소에서 목적하는 다른 장소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의미함(김영일, 2010; Blasch, Welsh, & Wiener, 2010).
- 보행 지도는 시각장애인에게 이동기술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뿐만 아니라 방향정위에 대한 기초를 확립시켜 주는 데에도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시

각장애인의 연령, 시각장애 발생 시기, 시각장애 정도, 중복장애 여부 등 다양한 개인 특성을 고려하여 지도의 목표와 내용, 방법 및 평가 등을 달리해야 함(김영일 외, 2013;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21a; Blasch et al., 2010).

- 보행지도사는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전문가로, 시각장애인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맹학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지부·지회, 시각장애인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음. 보행지도사 자격은 2021년 5월부터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등록되었으며 2000년부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음(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21a).
- 시각장애인의 보행과 관련해 소수의 연구가 실시되었으며 보행지도사 혹은 보행지도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과거 선행연구는 시각장애인의 이동에 대한 개인적 경험에 기초한 분석과 보행 관련 플랫폼 및 기기 설계에 대한 연구가 주류임.

3. 연구범위

- 첫째, 제2장에서는 보행지도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 사례를 분류하여 제시함.
- 둘째, 제3장에서는 보행지도사 현황과 보행지도사 자격 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행 보행지도사자격증을 소지한 보행지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셋째, 제4장에서는 실제로 보행지도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각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보행지도서비스의 만족도 및 문제점 등을 포커스그룹인터뷰 형식으로 조사하였음.





4. 연구방법

첫째,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와 관련된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1회에 걸쳐 연구방향, 연구내용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고, 이를 통해 연구내용의 충실도와 연구의 객관성 및 타당성, 연구결과의 적합성 및 기여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 문헌조사를 통해 보행지도 자격제도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를 제시하였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미국, 호주, 일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보행지도 자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보행지도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보행지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도움으로 협회에 등록된 보행지도사 300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끝으로, 보행지도서비스의 만족도 및 개선점을 조사하기 위해 보행지도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보행지도서비스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은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도출하였다.

II. 국내외 보행지도사 자격 제도

1. 우리나라 보행지도사 자격 제도

1) 훈련 및 교육 과정

- 보행지도사는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주된 직무로 하며 시각장애인의 재활상담, 눈의 구조 및 안과 질환의 이해, 시각장애의 기초지식 및 점자의 이해, 보행이론의 이해, 일상생활훈련 지도, 보행훈련 지도 등 과 같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함.

2) 자격시험, 등록 및 보수교육

- 보행지도사 자격은 필기 자격검정시험을 통해 부여되며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함. 응시자격은 만 19세 이상(시험 공고일 현재)인 자로 중증(1-3급) 시각장애인은 응시가 불가함(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21a).

2. 유사 자격증 제도

1) 점역·교정사

- 점역·교정사는 보건복지부가 공인한 민간자격으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관리·운영함. 점역·교정사 자격은 점역 또는 교정 가능한 과목 유형 및 숙련된 과목 수에 따라 1, 2, 3급으로 분류함. 다만, 하위 등급을 취득한 자가 상위 등급에 응시한 경우 하위 등급에서 합격한 과목은 면제하고 있음(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21b).

2) 수어통역사

- 수어통역사는 수어로 농인과 청인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전문가이다. 수어통역사는 표정, 입모양, 손 동작을 사용해서 원활한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함. 수어통역사 자격증은 국가 공인자격이며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자연수 과정을 통과한 경우 발급 받음(한국농아인협회, 2021).

3) 언어재활사

- 언어재활사는 생애 중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문제, 즉 언어와 말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의 중재 및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임. 언어재활사는 아동기 언어 발달 장애를 비롯하여 뇌졸중 또는 치매와 같이 두뇌 기능 장애로 인한 신경 말·언어장애, 삼킴장애, 발음에 문제를 보이는 조





음음운장애, 성대 등 음성산출기관의 문제로 인해 목소리를 정상적으로 산출하지 못하는 음성장애, 말더듬과 같은 유창성장애, 지적장애 또는 자폐범주성 장애 등과 같은 발달장애를 동반한 의사소통장애, 청각장애를 동반한 말·언어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전문가임(한국언어재활사협회, 2021).

3. 해외 보행지도사 자격 제도

1) 미국

- 미국에서는 2000년에 시각재활 및 교육 전문가 자격회(Academy for Certification of Vision Rehabilitation and Education Professionals, ACVREP)가 설립되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각장애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재활 전문가 및 교육자들을 대상으로하여 전문적인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음. ACVREP는 민간 비영리 단체이며 자발적인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 의해 규율되는 독립적인 자치 자격발급 기관임(ACVREP, 2021).

2) 호주, 뉴질랜드, 남태평양 지역

- 오스트랄라시아 보행지도사 협회(Orientation and Mobility Association of Australasia, OMAA)는 호주, 뉴질랜드, 남태평양 지역의 여러 군도에서 활동하는 보행지도사를 위한 공식적인 전문 단체임. OMAA는 보행지도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동료 모임이나 전문적인 학회 혹은 세미나 등을 통해 전문성을 발전시키며 보행지도사를 전문가로 양성하고 보행지도사의 전문성을 대표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보행지도사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고 타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위해 보행지도와 관련된 전문적인 간행물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오스트랄라시아 지역은 크게 7개 권역으로 구분되어있으며 각 권역에는 최소 1개의 지역 대표가 있으며 해당 권역에서 발생하는 이슈나 필요에 대해 OMAA 관리부와 연락하며 보행지도사 확보 및 대중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있음(OMAA, 2021).

3) 일본

- 일본에서는 1970년부터 보행지도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 고령 시각장애인의 보행지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행지도사가 활동하고 있음. 이에 보행지도사의 역할이 단순히 시각장애인의 보행만을 지도하기 보다는 보행을 포함한 일상생활 전 영역을 지원하는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고령화되고 있는 일본 사회 및 문화 특성에 적합한 형태로 보행지도사의 기능과 역할이 발전하고 있음.

4. 시사점

- 첫째, 훈련 및 교육 과정에서 보행지도사의 실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둘째, 자격시험, 등록 및 보수교육에서 보행지도사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보행지도사의 기능 및 업무영역과 관련해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미국 및 호주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보행지도사 자격증의 국제화가 필요함

Ⅲ. 보행지도사 자격제도 및 보행지도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1. 연구의 개요





-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 자격제도 및 보행지도서비스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본 실태조사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보행지도사를 대상으로 보행지도사 교육 및 자격과 관련된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요구 의견 등을 조사하고자 실시하고자 함.
- 본 설문조사는 설문참여에 대한 설명서 및 동의서에 동의한 보행지도사에 한하여 진행하였으며,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음.

2. 연구 결과

- 본 연구에서는 보행지도사 자격증이 업무상 필요해서 응시한 경우와 본인 또는 가족이 시각장애가 있음으로 인한 것이 자격 취득 이유로 높았음. 보행지도가 시각장애인의 독립보행을 지원하고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에 긍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보행지도사로서의 한계는 보행지도기관의 부족이었고, 충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아 느끼게 되는 보행지도 능력 부족이 높게 나타났음. 이는 자격 취득 이후에도 집중적인 교육 및 연수의 기회를 통해 보행지도사의 지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 보행지도사 자격 시험 개선에 있어서 보행지도사 자격이 민간자격에서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승격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현재까지의 필기시험 정도의 내용과 난이도를 유지하되 약간 상향 조정되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함.
- 현재 보행지도사 양성을 위해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은 1순위로 보행지도사의 전문성 강화이며, 보행지도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기시험, 보수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는 물론 별도의 역량 강화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였음.

IV. 보행지도사 자격제도 및 보행지도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1. 연구개요

- 본 연구에서는 보행지도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질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활용함
- 본 연구에서는 보행지도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집단 간의 차이를 고려했으며 동시에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집단을 시각장애인 당사자와 보행지도서비스 전문가로 구분하였음. 보행지도서비스 전문가는 보행지도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11자로 특히 보행지도교육 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함.
- 참여자들은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장애인당사자 5인, 전문가 5인으로 구성하였음.

2. 연구 결과

- 연구 분석결과 보행지도사 자격제도 및 보행지도서비스의 문제점과 관련해 5개의 주제가 도출되었음
- 1 주제 : 보행지도사 교과내용 및 보행지도사 관리 추가 개선
 - 시각중복장애인 보행지도 교과내용 확대가 필요함.
 - 전맹시각장애인을 위한 교과내용 확대가 필요함.
 - 보행지도 실습 의무화 및 실습위주 보수교육 강화가 요구됨.
 - 보행지도사 관리 전산화 및 웹사이트 운영이 필요함.
- 2 주제 : 체계적인 보행교육의 미흡
 - 맹학교의 보행지도교육이 미흡함.
 - 보행지도 표준화 교재가 부족함.
 - 안마교육에 보행교육 추가를 고려함.
- 3 주제 : 독립보행은 직업재활의 기초라는 인식 필요
 - 독립보행은 직장 생활의 기본적인 능력임을 강조함.
 - 직장을 다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지도서비스가 필요함.
- 4 주제 : 보행지도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보행지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시각장애인 지부·지회를 활용해 보행지도서비스를 제공함.





- 안내견학교와 같은 1:1 훈련 시스템을 적용함.
- 5 주제 : 기존 제도 활용을 통한 보행지도서비스 확대
 - 근로지원인 중 보행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차등 급여를 제공함.
 - 대학내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캠퍼스 보행지도서비스를 실시함.
 - 보행 관련 직종에 보행지도사 자격증을 의무화함.

V. 결론 및 제언

- 1. 보행지도사 교과내용 및 보행지도사 관리 개선
 - 1) 시각중복장애인 보행지도 교과내용 확대
 - 2) 전맹시각장애인을 위한 교과내용 확대
 - 3) 보행지도 실습 의무화 및 실습위주 보수교육 강화
 - 4) 보행지도사 관리 전산화 및 웹사이트 운영 필요
- 2. 보행지도 교육환경 개선
 - 1) 맹학교를 활용한 보행지도교육 강화
 - 2) 안마교육과정을 통한 보행교육 강화
- 3. 보행지도서비스 인프라 확대
 - 1) 시각장애인 지부·지회 중도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사업에 보행훈련 강화
 - 2) 시각장애일자립생활·재활센터 확대
- 4. 기존 복지서비스 활용
 - 1) 보행지도사 자격증 소지 근로지원인 차등 급여
 - 2) 보행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선발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보행지도사(Orientation and Mobility Specialist)는 시각의 손상으로 이동에 제약이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전문적으로 보행을 지도하는 전문가이다(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20).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7)의 시각장애 발생 시기에 의하면 돌이전인 후천적 시각장애 발생원인이 95.4%에 해당하며, 후천적 시각장애 발생으로 인해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독립 보행이다. 또한 만20세 이상 시각장애인 출현율은 98.1%로 성인중도시각장애인의 재활교육이 매우 중요하나, 시각장애인은 개별적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체계적인 재활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이는 성인 중도시각장애인을 위한 재활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후천적 시각장애인이 선천적 시각장애인보다 보행의 어려움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 되기 전에는 특별한 노력 없이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었으나 시각장애인이 된 이후에는 보행이 거의 불가능할 수 있으며 후천적 시각장애인은 보행 곤란으로 인한 좌절감을 느끼기도 한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이 보행 제한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전략, 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지도해 주어야 한다.

이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보행지도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매년 20-30명의 보행지도사를 배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 형태로 보행지도사를 양성하고 있고 보행지도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는 부족한 실정이다.

시각장애인의 보행능력 향상은 재활의 성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지도사의 체계적 관리와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는 미흡하다.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보행지도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고, 시각장애인에게 생애 주기별로 개별화된 보행지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Academy for Certification of Vision Rehabilitation and Education



Professionals, 2018).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부터 보행지도사 양성 과정이 개시된 이후 보행지도사 자격, 양성 체계, 전문성 유지 방안, 시장 조사 등 보행지도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나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또한 보행 지도서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지도서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 자격제도 및 보행지도서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2. 관련 선행연구

1) 보행(orientation and mobility)의 의미와 보행지도사의 역할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초 재활훈련 중 하나인 보행은 보행(walk)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와는 달리 사람이 단순히 환경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는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orientation and mobility)이란 시각장애인이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감각과 인지적인 능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자신과 환경의 관계를 이해하면서 현재의 장소에서 목적하는 다른 장소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영일, 2010; Blasch, Welsh, & Wiener, 2010). 즉,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보행은 환경에 대한 이해를 위한 정신적인 과정을 가리키는 방향정위(orientation)와 환경 내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을 수반하는 물리적인 과정인 이동(mobility)이라는 두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이다(김영일 외, 2013; Academy for Certification of Vision Rehabilitation and Education Professionals, 2018; Blasch et al., 2010).

보행 지도는 시각장애인에게 이동기술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뿐만 아니라 방향정위에 대한 기초를 확립시켜 주는 데에도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시각장애인의 연령, 시각장애 발생 시기, 시각장애 정도, 중복장애 여부 등 다양한 개인 특성을 고려하여 지도의 목표와 내용, 방법 및 평가 등을 달리해야 한다(김영일 외, 2013;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21a; Blasch et al., 2010).

이처럼 보행지도는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학문

적으로도 보행지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나 폭넓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행 지도서비스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나 연구가 필요하다(김영일 외, 2013; 김호연, 2005).

2) 우리나라 보행지도사 자격 제도

보행지도사는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전문가로, 시각장애인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맹학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지부·지회, 시각장애인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보행지도사 자격은 2021년 5월부터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등록되었으며 2000년부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21a).

보행지도사는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주된 직무로 하며 다음과 같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다.

시각장애인의 재활상담
눈의 구조 및 안과질환의 이해
시각장애의 기초지식 및 점자의 이해
보행이론의 이해
일상생활훈련 지도
보행훈련 지도

보행지도사 자격은 필기 자격검정시험을 통해 부여되며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한다. 응시 자격은 만 19세 이상(시험 공고일 현재)인 자로 중증(1-3급) 시각장애인은 응시가 불가하다(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21a).





<표 I-1> 우리나라 보행지도사 필기 자격검정시험 과목

시험과목	문제수	배점
보행이론	25	100점(4점/1문제)
보행지도법	25	100점(4점/1문제)
시각장애의 이해	25	100점(4점/1문제)

3) 시각장애인 보행 관련 선행연구

시각장애인의 보행과 관련해 소수의 연구가 실시되었으며 보행지도사 혹은 보행지도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과거 선행연구는 시각장애인의 이동에 대한 개인적 경험에 기초한 분석과 보행 관련 플랫폼 및 기기 설계에 대한 연구가 주류이다.

김지혜, 오충원, 남이해(2021)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독립보행 현실이 어떠하며 환경적 요인은 적절한지 등에 대해 11명 성인 시각장애인을 인터뷰하여 이들이 독립보행을 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시각장애인의 독립보행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3집단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주제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헤매는 길-익숙한 곳에서 경험하는 낯섦’, ‘위험한 길-곤두서는 신경, 다치고 또 다치고’, ‘두려운 길-한 걸음 나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음’이라는 주제를 도출하였다. 인터뷰 내용분석을 기초로 시각장애인의 독립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의 편리성을 고려한 장애인 친화적인 정책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도로공사 안내문자나 긴급구조 요청 앱이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신호등 음향신호기나 점자블록 장애물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홍수희, 구유리(2021)의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의 대중교통 환승 경험에서의 문제점에 기반하여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을 위해 통합된 보조시스템의 기능과 역할 활용에 관해 조사하였다. 보행보조기기 및 서비스 사례분석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환승 경험 도중 개선이 필요한 기능과 요소를 확인한 뒤 발견하기(Discover), 정의하기(Define), 발전하기(Develop), 전달하기(Deliver)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 4단계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 중심의 환승 경험 시나리오 및 통합 보조시스템의 다섯 가지 서비스 컨셉들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시각장애인이 대중교통 환승 시 독립적인 이동을 경험하는데 유용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데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시각장애인이 환승 전반의 단계에서 안전한 이동을 경험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플랫폼의 서비스 블루프린트와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앱프로토타입을 제안하였다.

노가은 외(2021)는 몸 중앙에 위치한 카메라로 실시간 영상처리를 하여 시각 장애인 전방의 장애물 인식 및 객체 식별을 통해 물체의 정보를 읽고 시각 장애인에게 음성으로 보행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하였다. 딥러닝의 원리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현에 대한 내용을 기초로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웨어러블 보행 보조 기구를 개발해서 시각장애인들의 시각을 대체하여 보행을 보조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개발 구현결과 연구에서 이용된 웨어러블 방법이 기존 시각장애인용 지팡이의 단점인 약한 내구성과 모든 물체를 식별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박세영, 박주경, 류혜립, 이향인, 이경미(2021)의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 주변의 상황을 인지하여 음성으로 안내하는 IoT 장치와 길안내 앱을 개발하였다. IoT 장치의 초음파 센서를 통해 주변에 물체가 존재하는지를 감지하고 물체의 위치에 따라 다른 경고음을 제공하여 물체 근접정도를 구별하였다. IoT 장치의 카메라를 통해 입력된 영상은 딥러닝으로 학습된 물체인식 알고리즘에 의해 주변에 존재하는 물체를 인식할 수 있으며 길안내 앱은 음성인식, TTS, 큰 아이콘을 사용하여 시각장애인 맞춤형 UI를 제공하였다. 또한 목적지까지의 보행자 경로를 찾아 모든 세부경로를 지도에 표시하고 음성으로 안내하며, 총 보행 시간을 계산하여 함께 알려주는 기기를 개발하였다.

3. 연구범위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지도사 자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 보행지도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행지도 관련 선행자료를 조사하고 실태조사와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여 정책 개선을 위한 전문적인 의견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연구범위를 정하였다.

첫째, 제2장에서는 보행지도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 사례를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보행지도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제3장에서는 보행지도사 현황과 보행지도자격 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행 보행지도사자격증을 소지한 보행지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제4장에서는 실제로 보행지도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각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보행지도서비스의 만족도 및 문제점 등을 포커스그룹인터뷰 형식으로 조사하였다.

4. 연구방법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 보행지도 자격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행지도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문회의, 국내 문헌조사, 국외 문헌조사, 설문조사, 포커스그룹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첫째,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와 관련된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1회에 걸쳐 연구방향, 연구내용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고, 이를 통해 연구내용의 충실도와 연구의 객관성 및 타당성, 연구결과의 적합성 및 기여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 문헌조사를 통해 보행지도 자격제도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를 제시하였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미국, 호주, 일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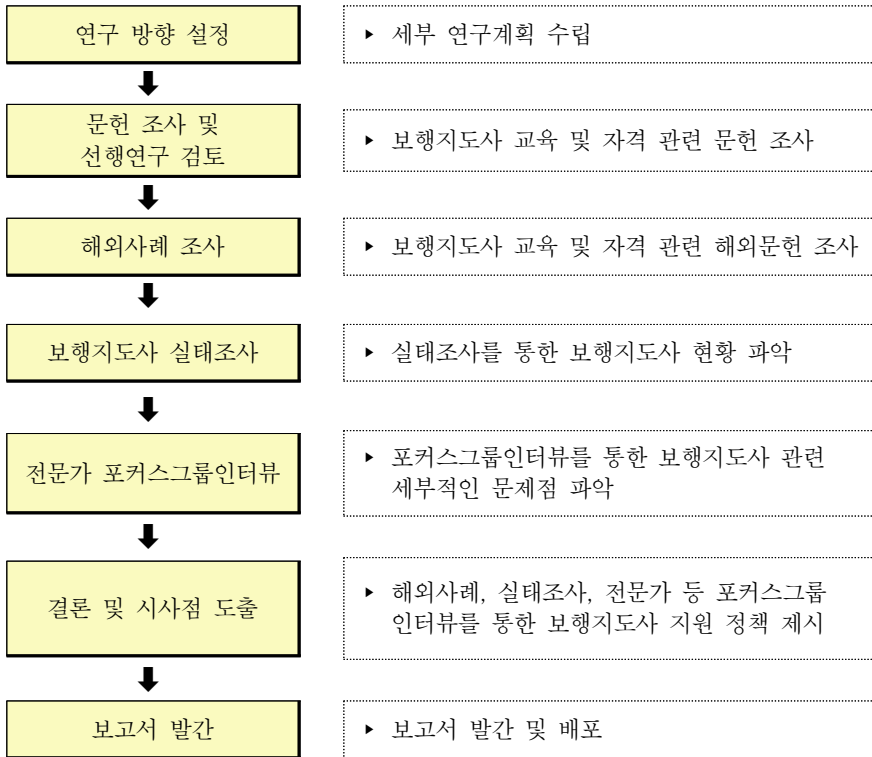
셋째, 보행지도 자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보행지도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보행지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도움으로 협회에 등록된 보행지도사 300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끝으로, 보행지도서비스의 만족도 및 개선점을 조사하기 위해 보행지도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

였으며, 보행지도서비스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은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도출하였다.

5. 연구수행체계

본 연구에서는 보행지도 자격제도의 실태와 보행지도서비스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미시적으로는 보행지도서비스 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거시적으로는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최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실행과정을 도식화한 연구수행체계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I-1] 연구수행 체계





II 국내외 보행지도사 자격 제도

1. 우리나라 보행지도사 자격 제도

보행지도사는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전문가로 시각장애인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맹학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지부·지회, 시각장애인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보행지도사 자격증은 2021년 5월에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등록되었으며 2000년부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21a).

1) 훈련 및 교육 과정

보행지도사는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주된 직무로 하며 다음과 같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다: 시각장애인의 재활상담, 눈의 구조 및 안과질환의 이해, 시각장애의 기초지식 및 점자의 이해, 보행이론의 이해, 일상생활훈련 지도, 보행훈련 지도 등(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21a).

<표 II-1> 우리나라 보행지도사 주요 과목

과목명	세부내용
보행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의 개념 - 방향정위의 정의와 핵심 개념 - 방향정위의 기초 기능과 지도 원칙 - 방향정위 전략 - 저시력과 보행 - 청각과 보행 - 감각운동 기능과 보행 - 잔존감각의 활용 - 보행전문가양성제도
보행지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법 - 보행기초기술 - 지팡이 기술1 - 지팡이 기술2 - 실외보행 기초 기술 - 실외보행 응용 기술 - 보행훈련 계획과 평가 - 시각장애 영유아 보행지도법 - 시각장애 노인 보행지도법 - 저시력인 보행지도법 - 시각중복장애 보행지도법 - 안내견 보행 - 촉각지도 제작 및 활용 - 시각장애보행과 편의시설
시각장애의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의 개념의 정의 - 시각장애의 원인과 지원 방법 - 시각 평가의 이해와 활용1 : 임상 저시력 평가 - 시각 평가의 이해와 활용2 : 기능시각 평가 - 시각장애인 재활훈련의 이해 - 한글 점자의 이해 - 일상생활 - 보조공학기기 및 기술 - 시각장애인의 심리 -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현황



2) 자격시험, 등록 및 보수교육

보행지도사 자격은 필기 자격검정시험을 통해 부여되며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한다. 응시 자격은 만 19세 이상(시험 공고일 현재)인 자로 중증(1-3급)시각장애인은 응시가 불가하다(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21a).

<표 II-2> 우리나라 보행지도사 필기 자격검정시험 과목

시험과목	문제수	배점
보행이론	25	100점(4점/1문제)
보행지도법	25	100점(4점/1문제)
시각장애의 이해	25	100점(4점/1문제)

2. 유사 자격증 제도

1) 점역·교정사

점역·교정사는 보건복지부가 공인한 민간자격으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관리·운영한다. 점역·교정사 자격은 점역 또는 교정 가능한 과목 유형 및 숙련된 과목 수에 따라 1, 2, 3급으로 분류한다. 다만, 하위 등급을 취득한 자가 상위 등급에 응시한 경우 하위 등급에서 합격한 과목은 면제한다(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21b).

(1) 훈련 및 교육 과정

점역·교정사 1급은 3급 소지자가 2급에 해당하는 과목 중 2과목 이상 합격한 자로 한다(다만 영어를 필수 과목으로 함). 2급은 3급을 소지한 자로 영어, 수학/과학(컴퓨터), 음악, 중국어, 일본어 중 1개 과목에 합격한 자로 한다. 3급은 국어 과목에 합격한 자로 한다.

응시자격은 1급의 경우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영어 과목 응시자 또는

영어 과목 취득자 중 다른 과목 응시자로하며, 2급의 경우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하며, 3급의 경우 응시자격은 제한없다.

(2) 자격시험, 등록 및 보수교육

검정과목은 국어, 영어, 음악, 수학/과학(컴퓨터), 중국어, 일본어의 6개 과목으로 구분되며 시험 시간은 각 과목당 1시간 20분으로 한다. 검정방법으로 필기시험의 경우 국어 과목의 점자 상식 분야를 시험하며 점역실기는 목자를 점자로 옮기며 교정실기로 점자로 오기된 부분을 제시하고 바로 잡아 점자로 표기한다. 합격자 결정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각 과목 영역별 100분의 4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표 II-3> 점역·교정사 검정 과목 및 자격유형별 배점 기준

과목	자격유형 구분	배점기준	
국어	점역·교정사 (비시각장애인)	점자상식	20점
		점역실기	60점
		교정실기	20점
	점역·교정사 (시각장애인)	점자상식	20점
		점역실기	20점
		교정실기	60점
영어 수학/과학(컴퓨터) 음악 중국어 일본어	점역·교정사 (비시각장애인)	점역실기	70점
		교정실기	30점
	점역·교정사 (시각장애인)	점자상식	70점
		교정실기	30점

2) 수어통역사

수어통역사는 수어로 농인과 청인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전문가이다. 수어통역사는 표정, 입모양, 손 동작을 사용해서 원활한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수어통역사 자격증은 국가 공인자격이며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자연수 과정을 통과한 경우 발급 받는다(한국농아인협회, 2021).

(1) 훈련 및 교육 과정

수어통역사 필기시험 응시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내·외국인이며 시험 과목은 한국어의 이해, 장애인복지, 청각장애인의 이해, 수어통역의 기초이다. 실기 시험은 1차 필기시험 합격자가 응시 가능하며 시험과목은 필기통역, 음성통역, 수어통역이다. 합격자연수 과정은 2차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실시되며 연수기간은 1박2일이며 합격자 연수 수수료 후 자격증을 수여한다.

(2) 자격시험, 등록 및 보수교육

수어통역사 필기시험은 한국어의 이해, 장애인복지, 청각장애인의 이해, 수어통역의 기초이다. 출제 형식은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1과목당 25문항 총 100문항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한다.

실기시험은 필기통역, 음성통역, 수어통역을 통해 검정하며 필기통역은 녹화된 수어를 보고 문장으로 표현하고, 음성통역은 녹화된 수어를 보고 음성으로 표현하며, 수어통역은 녹음된 음성을 듣고 수어로 표현한다. 합격기준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한 자로서 음성통역 60점 이상 득점해야 한다.

3) 언어재활사

언어재활사는 생애 중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문제, 즉 언어와 말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의 중재 및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이다. 언어재활사는 아동기 언어 발달 장애를 비롯하여 뇌졸중 또는 치매와 같이 두뇌 기능 장애로 인한 신경 말·언어장애, 삼킴장애, 발음에 문제를 보이는 조음음운장애, 성대 등 음성산출기관의 문제로 인해 목소리를 정상적으로 산출하지 못하는 음성장애, 말더듬과 같은 유창성장애, 지적장애 또는 자폐범주성 장애 등과 같은 발달

장애를 동반한 의사소통장애, 청각장애를 동반한 말·언어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전문가이다(한국언어재활사협회, 2021).

(1) 훈련 및 교육 과정

언어재활사 자격증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1급 언어재활사는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다: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언어재활사 2급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응시 가능하다(※ 단, 장애인서비스과-295(2013.04.11.)호에 의거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도 응시자격이 인정됨).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표 II-4>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

구분	과목명
필수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경언어장애 - 언어발달장애 - 유창성장애 - 음성장애 - 조음음운장애 - 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 - 언어재활현장실무 - 언어재활관찰 - 언어진단실습 - 언어재활실습 - 언어재활관찰은 30시간 이상 이수 -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은 교내수업 45시간 이상 포함하여 총 90시간 이상 이수





구분	과목명
선택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화와 의사소통장애- 다문화와 의사소통- 말과학- 보완대체의사소통- 삼킴장애- 심리학개론- 언어기관해부생리- 언어발달- 언어학- 의사소통장애개론- 의사소통장애상담- 의사소통장애연구방법론- 재활학- 청각학- 특수교육학- 구개열언어재활- 뇌성마비언어재활- 말운동장애- 문제행동언어재활- 자폐범주장애언어재활- 지적장애언어재활- 청각장애언어재활- 학습장애언어재활- 선택과목 중 9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

(2) 자격시험, 등록 및 보수교육

언어재활사 1급 시험은 아래와 같이 6대 장애 영역에 대한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총 140문제이다. 각 과목 40% 이상, 총점 60% 이상 득점해야 한다.

<표 II-5> 언어재활사 1급 자격시험 기준

구분	시험과목	문항수
----	------	-----

구분	시험과목	문항수
1교시	신경언어장애	20
	언어발달장애	20
	유창성장애	20
	음성장애	20
	조음음운장애	20
2교시	언어재활현장실무	40

언어재활사 2급 시험은 아래와 같이 5대 장애 영역에 대한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총 150문제이다. 각 과목 40% 이상, 총점 60% 이상 득점해야 한다.

<표 II-6> 언어재활사 2급 자격시험 기준

구분	시험과목	문항수	필수득점기준	
1교시	신경언어장애	30	12문항 이상	90문항 이상
	유창성장애	25	10문항 이상	
	음청장애	25	10문항 이상	
2교시	언어발달장애	35	14문항 이상	
	조음음운장애	35	14문항 이상	

3. 해외 보행지도사 자격 제도

1) 미국

미국에서는 2000년에 시각재활 및 교육 전문가 자격회(Academy for Certification of Vision Rehabilitation and Education Professionals, ACVREP)가 설립되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각장애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재활 전문가 및 교육자들을 대상으로하여 전문적인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ACVREP는 민간 비영리 단체이며 자발적





인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 의해 규율되는 독립적인 자치 자격발급 기관이다(ACVREP, 2021).

(1) 훈련 및 교육 과정

ACVREP는 우수자격협회(Institute for Credentialing Excellence) 소속이며 전국자격증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Certifying Agencies)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격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ACVREP는 보행지도(Orientation and Mobility), 시각재활치료(Vision Rehabilitation Therapy), 저시력치료(Low Vision Therapy), 보조공학지도(Assistive Technology Instruction)의 4영역에 관련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ACVREP에서 발급하는 보행지도사 자격은 기준1(Category 1)과 기준2(Category 2)로 구분된다.

기준1(Category 1)은 보행지도와 관련된 전공자로 최소한 공인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350시간 보행지도 실습을 이수해야하며, ACVREP 보행지도사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기준2(Category 2)는 경로A(Path A)는 보행지도 관련 저문 지식 13영역을 충족하는 보행지도 대학원 수준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하며 경로B(Path B)는 보행지도 관련 전문 지식 13영역을 충족하는 전미 정부 기관에서 공인한 보행지도 전문 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며, 350시간 보행지도 실습을 이수해야하며, ACVREP 보행지도사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보행지도 13개 전문 지식 영역은 다음과 같다.

- 전문 지식의 이해
- 의료 관련 지식의 이해
- 보행지도에 학습이론의 적용
- 보행지도 평가의 계획 및 시행
- 보행지도 프로그램의 계획
- 보행지도 관련 개념의 지도
- 보행지도 전략 및 기법의 지도
- 이동 기술의 지도
- 감각 이용 방법의 지도

- 중복 장애인의 지도
- 다문화 장애인의 지도
- 환경의 분석 및 수정
- 시각장애의 심리사회적 특성의 이해

(2) 자격시험, 등록 및 보수교육

보행지도사 자격 시험(Orientation and Mobility Specialist Certification Exam)은 총 140개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II-7> 미국 ACVREP 보행지도사 자격 시험 세부 내용

보행지도 자격 시험 영역		문항 수	시험 비율
1	전문정보(Professional Information)	5	4%
2	의료 관련 지식(Relevant Medical Information)	10	7%
3	보행지도 평가(O&M Assessment)	16	11%
4	보행지도 프로그램(O&M Instructional Program)	12	9%
5	보행지도 관련 개념(O&M-related Concepts)	9	6%
6	보행지도 전략 및 기법(Orientation Strategies and Skills)	21	15%
7	이동기술(Mobility Skills)	29	21%
8	감각이용(Use of Senses)	8	6%
9	중복장애(Additional Disabilities)	10	7%
10	인간발달 및 다양성(Human Development and Diversity)	6	4%
11	환경접근(Environmental Accessibility)	6	4%
12	심리사회 적응(Psychosocial Implications)	8	6%

시험 결과는 통과(pass) 혹은 탈락(fail)으로 결정되며 탈락한 경우에는 영역별 점수가 공개되지만 통과한 경우에는 추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자격은 5년마다 갱신하며 5년 주기로 100점의 보수교육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2) 호주, 뉴질랜드, 남태평양 지역

오스트랄라시아 보행지도사 협회(Orientation and Mobility Association of





Australasia, OMAA)는 호주, 뉴질랜드, 남태평양 지역의 여러 군도에서 활동하는 보행지도사를 위한 공식적인 전문 단체이다. OMAA는 보행지도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동료 모임이나 전문적인 학회 혹은 세미나 등을 통해 전문성을 발전시키며 보행지도사를 전문가로 양성하고 보행지도사의 전문성을 대표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보행지도사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고 타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위해 보행지도와 관련된 전문적인 간행물이나 정보를 제공한다. OMAA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보행지도사를 지원한다.

- 동료 모임, 세미나, 학회, 토론 등을 통한 네트워킹 회의의 주최
- 세계 각국의 정보를 주별로 업데이트 한 블로그 제공
- 호주 및 남태평양 지역의 보행지도 이슈, 최근 전문적 동향, 신형 이동 보조기기, 학회 및 전문가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계간 학회지를 통해 발표

오스트랄라시아 지역은 크게 7개 권역으로 구분되어있으며 각 권역에는 최소 1개의 지역 대표가 있으며 해당 권역에서 발생하는 이슈나 필요에 대해 OMAA 관리부와 연락하며 보행지도사 확보 및 대중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OMAA, 2021).

(1) 훈련 및 교육 과정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보행지도사 훈련 과정 및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보행지도, 보행지도 보조, 기타 시각장애 관련 재활 분야 등 다양한 보행지도 전문 영역에 따라 훈련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 고용주가 보행지도사를 선발할 때 보행지도사의 자질 및 필수자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일하고자하는 기관의 자격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보행지도 관련 과목은 매년 개설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설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연락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보행지도 관련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보건과학, 심리학, 재활학, 교육학 등과 관련된 학부 학위가 필요하다(OMAA, 2021).

①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University of New South Wales)의 보행지도 대학원 학위 과정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University of New South Wales)와 안내견 NSW/ACT(Guide Dogs NSW/ACT)는 공동으로 보행지도 대학원 학위 과정을 제공하며 2021년 2학기에 개시하였다. 정규 교육과정은 온라인 학습 과정, 대면 실기, 직무 통합 과정(Work Integrated Learning)을 포함한다. 즉 응시자는 오스트랄라시아 어느 지역에서나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며 함께 모여 블라인폴드를 이용한 훈련을 실시하며 본인이 거주하는 곳 인근에 위치한 기관에서 WIL을 완료할 수 있다. 본 교육과정은 미국 시각재활 및 교육 전문가 자격회(Academy for Certification of Vision Rehabilitation and Education Professionals, ACVREP)에서 요구하는 전문 영역을 충족하고 있다.

기존의 여러 보행지도 교육과정과는 달리, 본 과정은 다양한 학부학위를 소지한 응시자에게 개방되어 있다. 3년제 학부학위를 소지한 응시자의 경우에도 2021년 초부터는 직접 UNSW로 응시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받지않고 등록금 지불이 가능하며 졸업 후에도 아무 곳에서나 일할 수 있다.

안내견 NSW/ACT은 기초적인 자금을 제공하며 UNSW에서는 직접 강의인력이나 직원을 채용하여 향후에는 UNSW가 교육과정을 전담하여 책임진다.

본 교육과정은 검안 및 시각과학 대학(School of Optometry and Vision Science)의 2학기 이상 대학원(postgraduate) 과정이며 반드시 대학원 수준의 보행지도 5420(Orientation and Mobility 5420)을 수강해야하며 VISN5513을 완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본 과정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복잡하고 개별적인 시나리오에 따라 적절히 적용 가능한 준거에 기초한 기법 및 기술 등을 익힌다. 그리고 학문적 지식과 실제 적용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WIL을 통해 임상적인 전문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UNSW, 2021).

② 매시 대학교(Massey University)의 보행지도 교육과정

2021년부터 뉴질랜드에서도 아동 및 성인 시각장애인의 보행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보행지도사 교육과정을 개시하였다. 매시대학교(Massey University)가 운영하는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Specialist Teaching



Programme)로 보행지도에 중점을 둔 전맹 및 저시력장애인 특별 교육(Specialist Teaching Blind and Low Vision)의 대학원 학위(PostGraduate Diploma) 과정 및 대학원 자격증(PostGraduate Certificate) 과정을 제공한다.

매시 대학교의 이러한 2종류의 보행지도 교육과정은 뉴질랜드 전맹 및 저시력 교육 네트워크(Blind and Low Vision Education Network New Zealand, BLENNZ)에 의해 고용된 보행지도사를 위한 과정이다.

매시 대학교의 대학원 학위 과정은 2년 동안 4개의 매시 대학교 수업과 매시 대학교 밖에서 필수적으로 수강해야하는 점자 수업을 포함하고 있다. 수강생은 첫째에 전맹 및 저시력 이론 및 실제(Course 1: 249746), 전문 학습 지도(Course 2: 254766)을 이수해야 한다. 두 번째 해에는 ACVREP 필수사항을 준수한 전맹 및 저시력 실습(Course 3: 249752), 지역사회 기반 실습(Course 4: 254767)을 완수한다.

그리고 매시 대학교의 대학원 자격증 과정은 1년 과정으로 시각장애인 기관에서 아동 및 성인 시각장애인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개방된 자격증 과정이다. 1년 과정에는 전맹 및 저시력 이론 및 실제(Course 1: 249746), 전문 학습 지도(Course 2: 254766)을 포함한다. 또한 공식적인 보행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시 대학교 밖에서 ACVREP 필수조건에 맞는 실습을 완수해야 한다.

매시 대학교의 대학원 학위 및 대학원 자격증 과정에 입학하기 위한 기본요건으로는 학사학위 혹은 그와 준하는 자격을 소지하고 유사 전문 영역의 자격을 소지하며 최소 2년의 유사 전문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OMAA, 2021).

(2) 자격시험, 등록 및 보수교육

OMAA는 보행지도사 자격시험을 실시하거나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으며 공인 보행지도사 자격 검정은 ACVREP에서 실시한다. OMAA는 OMAA에 등록된 보행지도사(OMAA Registered O&M Specialist)를 관리한다. OMAA 등록 보행지도사는 보행지도 자격기준을 완수하고 실무 현장에서 전문적 자질을 나타내며 국제적 자격 인증 시험인 ACVREP의 자격시험을 통과한 후 현장에서 최신 지식과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 OMAA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매 5년 마다

전문 보수교육 100점을 취득하는 사람이다.

현재 OMAA에는 총 50명의 보행지도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OMAA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 보행지도사를 검색할 수 있다. 등록 보행지도사는 이름, 업무 기관, 해당 지역, 제공 서비스 등으로 검색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등록 보행지도사의 이름, 등록 번호, 성별, 연락처, 활동 지역, 교육 및 자격증 소유 여부, 학위 전공 분야, 제공 서비스 영역(보행지도, 안내견 동반 보행지도, 유아 보행지도 등)과 관련된 사항을 검색할 수 있다.

이러한 등록 시스템을 통해 ACVREP에서 요구하는 보행지도사 보수교육 및 필수조건을 유지하며 호주의 국가장애보험계획(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 하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일본

일본에서는 1970년부터 보행지도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 고령 시각장애인의 보행지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행지도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에 보행지도사의 역할이 단순히 시각장애인의 보행만을 지도하기 보다는 보행을 포함한 일상생활 전 영역을 지원하는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고령화되고 있는 일본 사회 및 문화 특성에 적합한 형태로 보행지도사의 기능과 역할이 발전하고 있다.

(1) 훈련 및 교육 과정

4년제 대학을 졸업 또는 시각 장애 재활 관련 시설에서 2년 이상, 실무 경험을 쌓아, 후생 노동성 위탁의 일본 라이트 하우스의 시각 장애 생활 훈련 지도자 양성 과정을 수강해, 시각 장애 생활 훈련 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다. 또한 국립장애인재활원 학원 시각장애학과를 졸업하고 시각장애생활훈련 전문직원 자격증을 취득한다. 보행지도사 자격 자체는 수험하는 것이 아니며 국립 장애인 재활센터 학원 및 사회 복지 법인 일본 라이트 하우스에 입학해 학과 과정을 수료했을 때에 취득할 수 있다.

국립장애인재활원학원 교육과목은 기초 과목(675 시간), 전문기초과목(287 시간), 전문 임상과목(1,298시간), 시설견학(44시간), 임상실습(800시간), 줄





업연구(3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일본보행지도사협회, 2021).

<표 II-8> 일본 국립장애인재활원학원 교육과목

과목명	세부내용
기초 과목(675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 복귀 요법 개론- 시각장애 재활개론- 시청각중복장애 재활 개론- 심리학(학습, 지각, 발달, 임상, 노년)- 카운슬링- 감각 생리학- 눈의 구조와 기능- 운동학- 노년병 의학- 당뇨병 내과- 시각장애 영유아 교육- 시각 장애아 교육- 시청각중복장애 아동 교육- 사회복지 개론- 사회 복지 원조 기술론- 시각 장애 재활 연구법- 시각 장애 재활 통계법
전문기초과목(287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각장애 재활원론(안과학, 심리적 양상, 실명통계, 운동컨트롤, 감각정보처리, 맹노인, 중복장애, 당뇨병후련, 안경광학, 맹도견)- 시청각중복장애 재활원론(의사소통론, 심리적 양상, 청각장애의 병리와 생리, 청각장애의 들림)

과목명	세부내용
전문 임상과목(1,298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론과 교수법 및 연습 - 보행기술 이론과 교수법 - 보행기술 이론과 교수법 연습 - 시청각중복장애 보행기술 이론과 교수법 - 시청각중복장애 보행 기술 이론과 교수법 연습 - 커뮤니케이션 기능의 이론과 교수법 - 커뮤니케이션 기능의 이론과 교수법 연습 - 일상생활 기술의 이론과 교수법 - 일상생활 기술의 이론과 교수법 연습 - 시청각중복장애 일상생활 기술의 이론과 교수법 - 시청각중복장애 일상생활 기술의 이론과 교수법 연습로우비전의 이론과 교수법 - 저시력의 이론과 교수법 연습 - 레크레이션 훈련의 이론과 교수법 - 레크레이션 훈련의 이론과 교수법 연습 - 시각장애인이 생활하기 위한 기초지식 - 생활 훈련 평가법 - 시각장애인의 컴퓨터 활용 - 시청각중복장애의 컴퓨터 활용 - 중복 장애인의 훈련 - PC 개론 - 생활 훈련 보조구 이론 - 시청각중복장애 생활 훈련 보조구 이론
시설견학(4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맹도견(안내견) 훈련센터 - 장애인 지원시설 등
임상실습(800시간)	- 임상실습
졸업연구(30시간)	- 졸업연구

4. 시사점

우리나라 보행지도사 자격제도와 관련해 국외 보행지도사 자격제도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훈련 및 교육 과정을 비교하면 미국은 보행지도사의 기능과 수준에 따





라 등급을 구분하고 있으며 350시간 실습을 의무화하여 보행지도사의 실무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반영하여 우리나라 역시 보행지도사의 실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정 시간 이상의 실습을 의무화하거나 자격유지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실습을 추가하여 보행지도사의 실무능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과 호주는 대학에서도 보행지도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학위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행지도사 대학에서는 교육하고 있지 않으며 보행교육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대학과정에 보행지도 학위 혹은 자격증 과정을 개설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일부 대학의 특수교육학과나 재활학과와의 연계를 통해 대학수준의 보행지도 전공과정을 개설하는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격시험, 등록 및 보수교육을 비교하면 해외에서는 보행지도사의 보수교육의 의무화를 통해 일정 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하고 있으며 온라인 사이트 등을 활용해 보행지도사의 정보를 공유 및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보수교육을 통한 실습의 의무화는 보행지도사의 자질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초가되며 엄격한 보수교육 점수 이수를 통해 보행지도사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식적인 웹사이트나 보행지도사협회 등의 공개 채널을 통해 보행지도사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여 개별 보행지도사와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즉 온라인을 통해 보행지도사 등록, 정보검색, 서비스 영역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웹사이트에서 보행지도서비스를 필요로하는 기관 혹은 개인이 적절한 보행지도사를 검색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채널을 통해 보행지도서비스를 필요로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보행지도사와 연락할 수 있으며 기관이나 개인에게 적합한 보행지도사를 직접 선별할 수 있다.

셋째, 보행지도사의 기능 및 업무영역과 관련해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보행지도사의 주요한 기능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지도이지만 단순히 보행지도로 제한을 두기보다는 일상생활 지원을 포함하여 보행지도사의 기능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 보행지도사 세부 검정 시험 및 영역을

참고하여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예를 들어, 일본은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 시청각 중복장애, 고령 시각장애인에 초점을 두고 있음)에 필요한 기능을 교과과정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미국 및 호주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보행지도사 자격증의 국제화가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미국 및 호주의 보행지도사 교과과정 기준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보행지도사 수준을 국제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타국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보행지도사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III

보행지도사 자격제도 및 보행지도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1. 연구의 개요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 자격제도 및 보행지도서비스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실태조사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보행지도사를 대상으로 보행지도사 교육 및 자격과 관련된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요구 의견 등을 조사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설문참여에 대한 설명서 및 동의서에 동의한 보행지도사에 한하여 진행하였으며,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1) 연구 참여자 특성

보행지도사 실태 및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등록된 보행지도사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158명이 설문에 응하였으나 7인의 응답에서는 무응답 비율이 높아 7인의 응답을 제외하고 총 151명에 해당되는 결과를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대상자의 수는 151명으로 성별은 남성이 42.4%, 여성이 57.6%로 나타났다. 연령을 살펴보면, 30대가 30.5%(4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0대 29.1%(44명), 50대 27.8%(42명), 20대 9.3%(14명) 순이며, 60대 이상 3.3%(5명)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31.8%(48명)이 가장 높았고, 경기도 30.5%(46명), 강원도 4.6%(7명), 전라남도 4.6%(7명)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중퇴 포함)이 55.6%(8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학 졸업(중퇴 포함) 20.5%(31명), 대학원 석사 졸업(수료 포함) 18.5%(28명), 고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4.0%(6명), 대학원 박사 졸업(수료 포함) 1.3%(2명) 순으로 나타났다. 소지한 자격증을 살펴보면, 전원이 보행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사회복지사 104명, 기타 31명, 보육교사 26명,

교원자격증 25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 인적 사항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64	42.4
	여성	87	57.6
	전체	151	100.0
연령	20-29세	14	9.3
	30-39세	46	30.5
	40-49세	44	29.1
	50-59세	42	27.8
	60세 이상	5	3.3
	전체	151	100.0
거주 지역	강원도	7	4.6
	경기도	46	30.5
	경상남도	5	3.3
	경상북도	3	2.0
	광주광역시	6	4.0
	대구광역시	2	1.3
	대전광역시	2	1.3
	부산광역시	—	—
	서울특별시	48	31.8
	세종특별자치시	—	—
	울산광역시	3	2.0
	인천광역시	6	4.0
	전라남도	7	4.6
	전라북도	6	4.0
	제주특별자치도	—	—
	충청남도	6	4.0
	충청북도	4	2.6
	전체	151	100.0





구분		빈도	비율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6	4.0
	전문대학 졸업(중퇴 포함)	31	20.5
	대학교 졸업(중퇴 포함)	84	55.6
	대학원 석사 졸업(중퇴 포함)	28	18.5
	대학원 박사 졸업(중퇴 포함)	2	1.3
	전체	151	100.0
소지한 자격증 (중복 응답 가능)	보행지도사	151	1
	사회복지사	104	2
	보육교사	26	4
	작업치료사	1	8
	장애인재활상담사	11	6
	심리상담사	7	7
	보조공학사	1	8
	교원자격증	25	5
	기타	31	3
	전체	—	—

2) 설문지 구성 및 제작

보행지도사 실태 및 보행서비스 개선 요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제작된 설문지는 <표 III-2>과 같다. 설문지의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각장애 전공 교수 2인을 통해 내용을 점검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고, 본 조사에 앞서 보행지도사 5인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내용 점검은 물론, 문항의 순서와 배치, 용어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수정하여 최종 보완하였다.

설문지는 총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문항의 인구사회학적 인적 사항, 7문항의 보행지도사 근무 현황 그리고 5문항의 보행지도사 자격 검정 개선 방안의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2>과 같다.

<표 III-2> 설문지 구성 및 내용

설문구성	설문내용
A. 인적사항 (5문항)	성별, 연령, 거주 지역, 최종학력, 소지한 자격증
B. 보행지도사 근무현황 (13문항)	보행지도사 자격 취득 시점, 현재 보행지도사로 일하고 있는지, 일하고 있지 않은 이유, 보행지도사 현장 경력, 근무 기관 유형, 보행지도사 자격에 응시한 이유, 보행지도를 하면서 가장 좋은 점, 보행지도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 보행지도사로 일하기 위해 적합한 전공, 보행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추가적인 교육 필요 여부, 보행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필요한 추가적인 교육, 보행지도사 배치 기준, 보행지도사의 능력에 따라 업무가 적절하게 할당되고 있는지, 보행지도 분야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
C. 보행지도사 자격 검정 개선 방안 (3문항)	필기시험 개선에 대한 의견, 실기시험 개선에 대한 의견, 보행지도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3)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 version 21.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는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였다. 보행 서비스 개선 방안 등과 같은 중복 응답이 가능한 문항의 경우에는 다중 응답(multiple responses) 기법을 활용하여 빈도,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을 제시하였다.

2. 연구 결과

1) 보행지도사 자격 취득 시점 및 근무 현황

보행지도사 자격 취득 시점을 보면 1년-3년 전에 취득한 경우가 전체





35.1%로 가장 많았으며, 이 경우를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취득한 경우가 65% 정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결론을 지어보면 최근에 더 많은 수가 보행지도사 자격에 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가지가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첫째, 보행지도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졌다고 예측할 수 있고, 둘째, 교육방식이 더 용이해졌기 때문에 응시자 및 취득자가 더 많은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즉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도하여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을 실시했던 5년 전과 비교해 현재는 이론교육은 교재와 동영상 등을 통해 학습하고, 1차 이론교육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신 편제로 시행한 시점 이후에 더 많은 자격 취득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 보행지도사 자격 취득 시점

구분		빈도	비율
보행지도사 자격 취득 시점	1년 이내	14	9.3
	1년-3년 전	53	35.1
	3년-5년 전	30	19.9
	5년-10년 전	50	33.1
	10년-15년 전	4	2.6
	전체	151	100.0

<표 III-4>에 의하면 현재 보행지도사로 근무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일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 42.4%로 더 낮게 나타났다.

<표 III-4> 보행지도서로서 현재 근무 여부

구분		빈도	비율
현재 보행지도사 로서 근무 여부	일하고 있다	64	42.4
	일하고 있지 않다	87	57.6
	전체	151	100.0

현재 일하고 있지 않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기타 이유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보행지도사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23.2%로 나타났다. 기타에 해당되는 이유를 분석한 내용은 <표 III-5>에 별도로 제시하였다.

<표 III-5> 보행지도사로 일하지 않고 있는 이유

구분		빈도	비율
보행지도사로 일하고 있지 않은 이유	보행지도사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서	35	23.2
	보행지도사의 급여가 낮아서	8	5.3
	보행지도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서	1	0.7
	기타	47	31.1
	무응답	60	39.7
	전체	151	100.0

그러나 기타의 이유를 살펴보면 기타 47건 중에서 전체 응답자 중 11명의 경우에 보행지도사로는 근무하지 않지만 시각장애학교에서 일반 수업 이외에 보행지도를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을 보행지도 근무 여부에 포함시킨다면 50% 정도가 보행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의 기타 이유로는 21명이 시각장애관련기관에서 점역교정이나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현재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결론적으로는 보행지도사로 구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재 거의 다 보행지도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2명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격증 취득 이후의 보수교육에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시각장애 분야에서 일하지 않으면서 보행지도사에 대한 단순한 관심으로 시작한 경우에는 보행훈련을 지도하기에 좀 더 근본적인 보행 훈련 지도 교육과 실습이 필요한 바, 보행지도사 자격증 취득 이후 현장 지도를 나가기 앞서, 직전 연수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인 지도 역량을 갖추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III-6> 현재 보행지도사로 일하지 않는 이유

구분		빈도	비율
현재 일하지 않는 기타 이유	현재 다른 부서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중 (예, 점역교정사로 일하고 있거나 시각장애 기관의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음)	21	
	기존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 있음	13	
	시각장애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보행지도를 하고 있음	11	
	사회복지사로서 일하고 있음	7	
	시각장애인 관련 업종에서 일하고 있음	7	
	다른 직업으로 이직을 하여 현재 관련없는 일을 하고 있음	4	
	퇴사 및 휴직 중	3	
	보행지도사로 일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낌	2	
	관련된 다른 자격증 취득 중	2	
	기타	5	
	합계	75	

설문조사 참여 대상자들의 보행지도 경력을 알아본 결과, 1년 미만으로 경력
이 짧은 경우가 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년 미만인 경우가 33.8%로
나타났으며, 10년 이상의 오랜 경력을 보유한 사람은 5.3%였다. 보행지도사가
본격적으로 배출된 시점이 길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
는 경우에는 소수인 것으로 볼 수 있고, 보행지도사로 일할 수 있는 직업 여건
이 좋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포함한 연
구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보행지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많지만 보행지도 자격 취득 이후에
는 1명의 무응답을 제외하면 전체가 보행지도 경험을 해 본 것으로 나타나 보

보행지도사의 자격증 활용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 III-7> 보행지도 경력

구분		빈도	비율
보행지도 경력	1년 미만	68	45.0
	1년-5년 미만	51	33.8
	5년-10년 미만	23	15.2
	10년 이상	8	5.3
	무응답	1	0.7
	전체	151	100.0

근무 기관의 유형을 살펴보면 37.7%가 사회복지 관련기관인 복지관이나 자립생활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18.5%로 사회복지 관련 단체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도 지부·지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15.9%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보행지도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를 살펴보면 그동안 자격증을 취득한 많은 보행지도사가 복지관, 자립생활센터, 생활시설, 시각장애인연합회 시도 지부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필요에 의하여 보행지도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던 보행지도사 자격 취득자는 시각장애학생의 부모, 시각장애인의 지인 혹은 가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은 보행지도의 필요성을 느껴서 보행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자원봉사로 보행지도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 보행지도사의 근무 기관 유형

구분		빈도	비율
근무 기관 유형	학교 등 교육기관 종사	24	15.9
	사회복지 관련 기관 (복지관, 자립생활센터 등) 종사	57	37.7
	사회복지 관련 단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종사	28	18.5
	공공기관(공무원 등) 종사	2	1.3
	상담 및 심리상담서비스 관련 기관 종사	—	—
	프리랜서	7	4.6
	학교 재학중(학생)	—	—
	비활동(자원봉사)	14	9.3
	기타	12	7.9
	무응답	7	4.6
	전체	151	100.0

2) 보행지도사 자격 취득 이유

보행지도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이유를 알아본 결과, 업무상 필요해서 응시한 경우가 75.5%로 현직을 수행하는 가운데 보행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향후 이직을 위해 필요해서 응시한 경우가 5.3%로 나타났다. 기타 이유로는 가족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더 잘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경우도 있고, 점점 시각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각장애에 적응하기 위해서 응시한 경우까지 다양한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 17건의 기타 의견도 높은 수치에 해당되어 <표 III-9>에 별도로 제시하였다.

<표 III-9> 보행지도사 자격 취득 이유

구분		빈도	비율
보행지도사 자격 취득 이유	현 업무에 필요해서	114	75.5
	향후 이직에 필요해서	8	5.3
	장애 관련 학과를 졸업해서	4	2.6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8	5.3
	기타	17	11.3
	전체	151	100.0

기타 자격 취득의 이유로는 시각장애인 당사자로 계속 악화되는 시력 문제를 알고 있어서 미리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답한 경우가 4건, 자녀의 보행에 도움이 되고자 답을 한 경우가 4건으로 당사 자이거나 당사자 가족으로서 필요한 기술을 획득하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기타 의견으로서는 가장 많으며, 시각장애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점, 현재의 교직이나 향후 할 일을 고려하면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0> 보행지도사 자격 취득 이유 (기타)

구분		빈도	비율
보행지도사 자격 취득 기타 이유	시각장애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3	—
	시각장애인 당사자로서 시력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미리 보행에 도움이 되고자	4	—
	시각장애인 자녀를 두고 있어서 보행에 관심이 있어서	4	—
	시각장애학교에 근무하는데 시각장애인의 보행과 일상생활지도에 도움이 되어	2	—
	과거 업무의 필요한 자격이어서	1	—
	시청각장애에 대한 공부에 도움이 될	1	—





구분		빈도	비율
	것이라고 생각되어		
	향후 맡게 될 업무에 필요할 것 같아서	2	-
	전체	17	-

3) 보행지도사의 역할의 장점 및 한계

보행지도를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독립보행을 지원하는 점이었고,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점이 2순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행지도사는 시각장애인의 독립보행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이 주요한 기능이며, 독립보행은 물론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시각장애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교육 내용에 추가해 심도있게 다루어 시각장애인의 기초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표 III- 11>보행지도 시 좋은 점 (중복응답 문항)

구분		1순위 빈도(비율)	2순위 빈도(비율)
보행지도를 하면서 가장 좋은 점	시각장애인의 독립보행 지원	128	17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17	103
	시각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1	26
	기타	5	3
	무응답	-	2
	전체	151	151

그러나 현재 보행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 보행지도를 실제로 경험하면서 느끼게 된 한계에 대해 1순위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한 내용은 보행지도 기관의 부족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순위에서도 가장 높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지도를 제공하는 기관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을 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측면 이외에도 보행지도사 자격을 가진 경우에도 다양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보행지도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보행지도사가 충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아 느끼게 되는 보행지도 능력 부족의 빈도수가 높다. 자격 취득 이후에도 집중적인 교육 및 연수의 기회를 통해 보행지도사의 지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기타 의견도 종합해 보면 보행지도의 기회가 많지 않은 문제나 시각장애 관련 기관에서 현재까지 보직을 순환하는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보행 지도하는 문제가 있다고 제시한 경우도 있었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사업 지원금에 따라 보행지도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제도적 한계 부분을 제시한 응답 등이 있었다.

<표 III-12> 보행지도 시 한계점 (중복응답 문항)

구분		1순위 빈도	2순위 빈도	전체 순위
보행지도 관련 한계	보행지도사로서 자신의 능력 부족	35	20	2
	보행지도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낮은 신뢰	29	25	3
	시각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	25	36	
	보행지도서비스 제공 기관의 부족	46	40	1
	기타	16	27	
	무응답	-	3	
	전체	151	151	



4) 보행지도사 시험 개선 의견

현재 보행지도사 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은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행지도사의 시험 개선 의견 중 보행지도사 필기시험에 대해서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되어도 현재의 수준으로 난이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한 경우가 49%로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보다 난이도를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인 경우가 많았다. 이를 보면 보행지도사 자격이 민간자격에서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승격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현재까지의 필기시험 정도의 내용과 난이도를 유지하되 약간 상향 조정되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표 III-13> 보행지도사 필기시험 개선 의견

구분		빈도	비율
필기시험 개선에 대한 의견	현행 필기시험을 유지한다	74	49.0
	현행 필기시험 난이도를 낮춘다	7	4.6
	현행 필기시험 난이도를 높인다	25	16.6
	현행 필기시험 내용의 범위를 좁힌다	10	6.6
	현행 필기시험 내용의 범위를 넓힌다	3	2.0
	기타	4	2.6
	무응답	28	18.5
	전체	151	100.0

한편 실기시험에 대한 개선 의견을 살펴본 결과, 실기시험도 역시 현재 수준의 난이도와 내용을 유지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필기시험보다 더 많은 빈도수로 난이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 보행지도사 자격에서 필기시험보다는 실기 능력의 중요성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III-14> 보행지도사 실기시험 개선 의견

구분		빈도	비율
실기시험 개선에 대한 의견	현행 실기시험을 유지한다	68	45.0
	현행 실기시험 난이도를 낮춘다	4	2.6
	현행 실기시험 난이도를 높인다	33	21.9
	현행 실기시험 내용의 범위를 좁힌다	3	2.0
	현행 실기시험 내용의 범위를 넓힌다	9	6.0
	기타	6	4.0
	무응답	28	18.5
	전체	151	100.0

5) 보행지도사 적합 전공에 대한 의견

보행지도사로 근무하기 위한 적합한 전공을 질문한 문항에서는 보행지도 관련 전공이 1순위로 나타났다. 다만 이 전공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복지 전공이 2순위, 3순위로는 특수교육 관련 전공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이나 사회복지 및 재활 관련 학부를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보행학 위주 전공을 별도로 개설하여 집중적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전문인을 양성하는 보행지도 전문가 양성에 대한 노력도 향후 필요한 사항임을 알 수 있다.





<표 III-15> 보행지도사 적합 전공 (중복 응답 가능)

(단위 : 명, %)

구분		빈도	순위
보행지도사로 일하기 위해 적합한 전공	보행지도 관련 전공	89	1
	장애학 관련 전공	51	4
	사회복지 관련 전공	67	2
	특수교육 관련 전공	57	3
	심리/상담 관련 전공	26	5
	보건/의료 관련 전공	3	9
	교육 관련 전공(특수교육 제외)	8	8
	행정 관련 전공	—	11
	직업/직업재활 관련 전공	20	7
	전공 상관 없음	23	6
	기타	3	9
	전체	—	—

6) 보행지도사 취득 후 추가 교육 및 보행지도사 배치에 대한 의견

보행지도사가 자격증 취득 후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필요하거나 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가 87%에 해당되어 많은 보행지도사가 현재의 교육으로는 보행지도사로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6> 보행지도사 취득 후 추가 교육 필요 인식 정도

구분		빈도	비율
보행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추가적인 교육 필요 여부	전혀 필요 없다	1	0.7
	필요 없다	6	4.0
	필요하다	85	56.3
	매우 필요하다	46	30.5
	무응답	13	8.6
	전체	151	100.0

보행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추가적인 교육으로 가장 많이 요구되는 교육으로는 전문 보행지도 테크닉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실습이 압도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행지도와 관련된 이론교육도 매우 높아 2순위로 나타났으며 시각장애인 이해를 위한 교육이 3순위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과 관련 법에 대한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

<표 III-17> 보행지도사 취득 후 요구되는 교육 내용 (중복 응답 가능)

구분		빈도	순위
보행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추가 교육 내용 의견 (중복 응답 가능)	시각장애인 이해를 위한 교육	33	3
	전문 보행지도 테크닉과 관련된 이론 교육	78	2
	전문 보행지도 테크닉과 관련된 실습	109	1
	전반적인 복지기관 업무/행정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	8	5
	기타	10	4
	전체	-	-



보행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현재 시험 영역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서는 모든 영역이 자격에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모든 응답자가 필요없는 부분은 별도로 없다고 대답하여 현행의 교육내용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일상생활 지원 영역 부분, 시각중복장애인에 대한 교육 부분, 저시력인을 위한 보행 교육 및 상담 부분, 중도에 실명한 노인기 시각장애인에게 심리적으로 접근하는 상담 부분 등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점이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되었다.

보행지도사를 배치할 때는 자격증 여부에 따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57%, 그 다음으로는 현장 경력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12.6%로 나타났다.

<표 III-18> 보행지도사 배치 기준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	비율
보행지도사 배치 기준에 대한 인식	보행지도사 자격증 유무에 따라서	86	57.0
	대학 전공에 따라서	1	0.7
	현장 경력에 따라서	19	12.6
	직무분석이나 인성/적성검사에 따라서	4	2.6
	잘 모르겠다	19	12.6
	기타	9	6.0
	무응답	13	8.6
	전체	151	100.0

보행지도사 업무 배치에 있어 능력에 따라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33.1%,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6%로 39%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에서 주의깊게 봐야 할 부분은 부정적으로

응답한 29% 정도의 응답자인데, 전체적으로 1/4이 넘는 응답자가 보행지도사 업무 배치에서 보행지도사 자격이나 보행지도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업무를 배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제도적으로 적극적인 시정 노력이 필요하다.

<표 III-19> 보행지도사의 능력에 따라 업무가 적절하게 할당되고 있는지 여부

구분		빈도	비율
보행지도사의 능력에 따라 업무가 적절하게 할당되고 있는지	전혀 그렇지 않다	4	2.6
	그렇지 않다	40	26.5
	그렇다	50	33.1
	매우 그렇다	9	6.0
	잘 모르겠다	35	23.2
	무응답	13	8.6
	전체	151	100.0

7) 보행지도 분야 발전 요구 의견

끝으로 보행지도 분야의 발전에 대한 요구 의견을 살펴본 결과, 현재 보행지도사 양성을 위해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은 1순위로 보행지도사의 전문성 강화이며, 보행지도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기시험, 보수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는 물론 별도의 역량 강화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순위 또한 다양한 이용자를 위한 보수교육의 다각화였다.

그 다음으로 3순위와 5순위의 요구로는 취업처에 대한 요구였다. 앞서 취업처가 적절하지 않아 자격은 있지만 취업을 못하고 있거나 그 자격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취업처를 다양하게 발굴하고 시각장애인 단체나 기관 등에서 보행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높은 필요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순위 발전 요구 의견으로는 보행지도서비스를 바우처를 활용한 서비스로 제공하여 보행지도서비스가 필요한 많은 시각장애인이 바우처를 활용하여 필



요한 만큼 교육을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의 발전 의견으로는 보행지도 수당의 신설, 회기당 보수에 대한 현실적 상향 조정 등이며, 보행지도사의 수나 시각장애인과 보행지도사 간의 이해 부분에 대한 발전 요구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II-20> 보행지도 분야 발전 요구 의견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순위
보행지도 발전 요구 의견	보행지도사 수가 늘어나야 한다	—	3	—	10
	보행지도 수당이 신설되어야 한다	3	5	34	6
	보행지도사를 위한 보수교육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15	47	12	2
	시각장애인과 보행지도사 간 이해를 높여야 한다	—	1	—	11
	보행지도가 활동지원제도와 같이 바우처 사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4	15	20	4
	보행지도사가 취업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하여 취업기회를 넓혀야 한다	2	25	31	3
	보행지도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124	13	10	1
	지역/지방 생활이동지원센터의 보행지도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	19	15	5
	시각장애인과 보행지도사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	2	5	9
	회기당 보수를 현실적으로 높여야 한다	—	21	21	7
	보행지도의 위험을 고려하여 상해보험 제공 등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3	6	3	8
	전체	151			

1. 연구 설계 및 질문의 개발

본 연구에서는 보행지도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질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활용하였다. 질문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FGI 연구방법 절차에 따라 질문의 원칙을 숙지하고 연구 목적을 명확히 한 후 그러한 목적에서 질문이 벗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책임 연구자는 질문의 초안을 작성하고 상호검증을 하였으며 연구의 자문위원들에게 질문에 대한 자문을 추가적으로 요청하였다.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거쳐 질문의 최종안이 도출되었으며 <표 IV-1>과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개발하였다.

<표 IV-1> FGI 질문 내용

	시각장애인 대상	실무 담당자 대상
시작질문	연구소개, 연구방향 제시, 참여자 소개	
도입질문	보행지도서비스 제공 현황, 보행지도서비스 체계	
전환질문	이용했던 보행지도서비스(이용 기간, 이용 장소, 이용 사유 등), 이용했던 보행지도서비스의 문제점, 문제점 해결 방안	설문결과 공유, 설문결과(보행지도사 직무, 보행지도사 처우, 보행지도서비스 발전 등)에 대한 논의
주요질문	보행지도서비스 개선을 위해 정부(보건복지부), 시각장애인 기관 및 단체의 역할	
마무리 질문	정리 및 종료	



2. 자료 수집 과정 및 절차

질적연구는 양적연구와 달리 소수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방법으로써 연구목적에 대한 가장 바람직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참여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Morse & Field, 1995). 또한 FGI는 질적연구방법의 하나로써 소수의 선정된 참여자가 그룹에 참여함으로써 특정 서비스, 상품, 개념 등에 대해서 본인들의 견해, 의견, 사고, 태도 등을 이야기하고 토론한다. 질문은 상호 역동적인 그룹 내에서 제시되며 이러한 그룹 환경 내에서 각 참여자들은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밝히며 그룹의 다른 참여자들에게 제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그룹에서 제시된 주요한 내용이나 사실들을 기록 및 요약하며 이를 위해 연구자는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답변을 얻기 위해 참여자를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FGI 연구는 양적 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그룹내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필요할 때, 복잡한 행동이나 동기를 밝히고 이해하고자 할 때 활용 가능하다(Creswell, 2003).

본 연구에서는 보행지도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집단 간의 차이를 고려했으며 동시에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집단을 시각장애인 당사자와 보행지도서비스 전문가로 구분하였다. 보행지도서비스 전문가는 보행지도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로 특히 보행지도교육 업무를 주로하는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FGI는 2021년 5월-8월에 진행하였으며, 참여자는 공동연구원, 장애인 단체 및 유관기관의 협조로 선정하였다. 참여자들은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장애인당사자 5인, 전문가 5인으로 구성하였다. FGI에 참석한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IV-2>과 같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회의에 소요된 시간은 각각 2시간 정도였다.

<표 IV-2> FGI 참여자 일반 사항

순번	성별	나이	주요특성
참여자1	남성	40대	시각장애인당사자
참여자2	여성	40대	시각장애인당사자
참여자3	여성	40대	시각장애인당사자
참여자4	여성	40대	시각장애인당사자
참여자5	남성	40대	시각장애인당사자
참여자6	여성	30대	보행교사
참여자7	남성	40대	보행교사
참여자8	남성	50대	보행교사
참여자9	여성	40대	보행서비스 담당자
참여자10	남성	50대	복지전공교수

인터뷰는 참여자들로부터 보행지도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과 관련된 새로운 진술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자료의 포화시점까지 진행되었다. 책임연구자는 참여자들이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일부 참여자가 토론을 독점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하지 않도록 하였고 모든 참여자가 연구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FGI 회의 중에 참여자들이 논의한 내용은 모두 녹음하였고 이후 분석을 위해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보행지도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 장애인당사자 및 전문가로부터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높이기 위해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였다(Creswell, 2003). 책임연구자는 FGI 논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분석하면서 의미 있는 단어·문장·단락을 선택하여 개방코딩(open coding)을 하였다. 유사한 문장과 단락으로 자료를 구분하고 구분된 문장에서 하위주제를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주제를 도출하여 명명하였다(Creswell, 2003).



4. 연구 결과

연구 분석결과 보행지도사 자격제도 및 보행지도서비스의 문제점과 관련해 5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표 IV-3>과 같다.

<표 IV-3> FGI 분석결과

주제	주요결과
보행지도사 교과내용 및 보행지도사 관리 추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중복장애인 보행지도 교과내용 확대가 필요함. - 전맹시각장애인을 위한 교과내용 확대가 필요함. - 보행지도 실습 의무화 및 실습위주 보수교육 강화가 요구됨. - 보행지도사 관리 전산화 및 웹사이트 운영이 필요함.
체계적인 보행교육의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맹학교의 보행지도교육이 미흡함. - 보행지도 표준화 교재가 부족함. - 안마교육에 보행교육 추가를 고려함.
독립보행은 직업재활의 기초라는 인식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보행은 직장 생활의 기본적인 능력임을 강조함. - 직장을 다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지도서비스가 필요함.
보행지도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보행지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시각장애인 지부·지회를 활용해 보행지도서비스를 제공함. - 안내견학교와 같은 1:1 훈련 시스템을 적용함.
기존 제도 활용을 통한 보행지도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지원인 중 보행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차등 급여를 제공함. - 대학내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캠퍼스 보행지도 서비스를 실시함. - 보행 관련 직종에 보행지도사 자격증을 의무화함.

1) 주제 1: 보행지도사 교과내용 및 보행지도사 관리 추가 개선 필요

(1) 시각중복장애인 보행지도 교과내용 확대

과거와 비교해 시각장애인 중에도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2017년 전체시각장애인 중 시각중복장애인은 7.81%이다(보건복지부, 2017). 그러나 현장에서는 시각중복장애인을 위한 보행지도서비스가 부족하며 특히 기존 보행지도사 교육교재 내용 중 시각중복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간략히 제시되어 있어 교육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요즘에는 맹학교에서도 시각중복학생이 다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중복장애인을 위한 보행지도교육이 좀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시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더욱더 전문적인 관심과 교육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참여자10).'

(2) 전맹시각장애인을 위한 교과내용 확대

보행지도서비스의 주요한 이용자는 전맹시각장애인으로써 이들의 독립적인 보행을 지도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보행지도사 교육교재의 시각장애의 이해 파트에서 저시력시각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저시력시각장애인의 보조기기 사용과 관련해 안경 배울 등을 계산하는 내용은 다소 이론적인 내용이며 전맹시각장애인에 집중하여 교육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저시력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망원경이나 기타 확대경 등의 배울을 구하는 내용이 자주 문제에 출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다소 불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행지도의 주 대상이 전맹시각장애인임을 고려한다면 전맹시각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이 보다 더 추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참여자 9).'

(3) 보행지도 실습 의무화 및 실습위주 보수교육 강화

현재 우리나라 보행지도사 자격증은 실습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실기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증이 부여되는 체계이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시간 실습없이 자력으로 실기시험을 통과하는 경우 실습을 통한 적절한 실



기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기도 한다. 그리고 보수교육 역시 단시간으로 집합교육을 통해 이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습 위주의 보수교육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에서는 100-300시간 정도 실습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보행은 이론보다는 실기가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실습을 통한 역량강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일정 시간 실습을 의무화하여 보행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적절한 실습을 통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해야 합니다(참여자10).'

(4) 보행지도사 관리 전산화 및 웹사이트 운영 필요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보행지도사 정보를 전산화하여 데이터 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전산화 체계를 통해 보행지도사와 보행지도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 간의 직접적이고 신속한 연계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역시 보행지도사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보행지도사 전산화 및 웹사이트 구축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보행지도사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현재 보행지도사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보행지도사를 찾으려면 일일이 전화를 하거나 아님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체계화된 관리를 위해서는 보행지도사 정보를 축적해 전산화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중요합니다(참여자7).'

2) 주제 2: 체계적인 보행교육의 미흡

(1) 맹학교의 보행지도교육 확대 필요

보행지도는 특성상 교실수업을 통한 '지식전달'에 의해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시각장애인 스스로가 몸으로 체득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보행교육을 처음 접하는 맹학교에서는 일반과목의 수업처럼 교사 1명이 전체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보행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현장감있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형화된 맹학교 교육과정상 보행지도에 충분한 시간을 할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행지도가 일상생

활지도에 포함되어 있어 보행지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맹학교는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보행지도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 교과와 하나로 보행지도가 실시되어 보행지도만 한학기 배우거나 집중적으로 배우지는 못했습니다(참여자2).'

(2) 보행지도 표준화 교재 필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보행지도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 보행이론, 보행지도법, 시각장애의 이해의 전문 교과서 3권을 제작하였다(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21a). 그러나 이는 보행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시험 준비생을 위한 교재로 보행지도 개념, 보행지도 이론, 보행지도 관련 정책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 일반인이나 시각장애인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보행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목적이 아니거나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독립보행 훈련을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교재는 매우 한정적이다. 또한 맹학교나 장애인복지관 등에서도 표준화된 보행지도 교재로 교육을 받기보다는 교사의 단순 구두지시로 보행교육을 받기도 한다. 도로, 신호체계, 환경 등이 변할 때마다 보행교육에 대한 교재가 필요하고 주기적인 보행교육 교과서나 매뉴얼 업데이트가 실시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저희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보고 접근할 수 있는 보행지도 교재가 없습니다. 현재 한시련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재는 너무 방대해 보기가 어려워 보다 간략하고 표준화된 교재가 필요합니다. 특히 맹학교마다 다른 교재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표준화된 교재가 필요합니다(참여자3).'

(3) 안마교육에 보행교육 추가 고려

안마는 시각장애인이 수행하는 대표적인 직업이다.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안마 및 병리학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전문적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일부 안마사는 외부출장을하는 경우가 있으며 실내외 출장과 관련해 기본적인 보행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안마 교육과정에 기초적인 보행훈



련을 추가하여 안마사의 이동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안마사도 실내외 독립보행을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보행훈련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안마 교육과정에는 보행이 전혀없는데 보행을 일부 추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참여자9).'

3) 주제 3: 독립보행은 직업재활의 기초

(1) 기초 직업기술로 독립보행 강조

독립보행은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문제 뿐 아니라 직업 및 경제활동은 물론 나아가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된다. 특히 독립보행은 시각장애인의 교육정도, 장애의 중경도, 업무기술 능력 등과 더불어 시각장애인이 직장을 잡고 직업생활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Duquette & Baril, 2013). 특히 시각장애인의 직업배치 과정 중 사업주가 시각장애인의 독립출근 여부를 문의하거나 직장 내에서 독립보행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근로지원인, 활동지원사가 항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독립보행 정도는 직업 생활에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시각장애인은 성공적인 직업재활을 위해 독립보행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보행지도교육을 통해 보행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제가 직업매칭을 하다보면 사업주가 시각장애인 응시자가 혼자서 출근하고 직장내에서 혼자서 다닐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독립보행이 어렵다면 사업주가 독립보행이 가능한 사람으로 매칭해 줄 것을 원하기도 합니다(참여자4).'

(2) 시각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개별 보행지도서비스 필요

직장에 근무 중인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시간을 내어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보행지도교육을 듣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외부 출장을 가거나 이직하여 새로운 직장 환경 등에 적응해야 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시간을 할애하여 보행지도교육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이처럼 근무 중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개별 보행지도서비스 제공

이 필요하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복지관 등에서 기존 집합교육 위주의 보행교육에서 벗어나 개별 상황에 맞는 보행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직장에 다니다보면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재활교육에 참여할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행훈련을 받고는 싶지만 거의 대다수의 복지관은 1:1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요. 특히 직장내에서 다니는 곳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단시간 교육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독립보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참여자1).'

4) 주제 4: 보행지도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1) 개별 보행지도서비스 필요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보행지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수 시각장애 단체에서 1:1 방문 보행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거의 대다수의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별 시각장애인의 보행환경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보행훈련을 보다 개별화하여 보행훈련 시간과 장소를 유동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관 1곳에서만 1:1 개별 가정방문 형태로 보행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지관들이 시간과 예산 부족으로 시각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1:1 교육보다는 집합교육 위주로 보행훈련을 하기도 합니다(참여자5).'

(2) 시각장애인 지부·지회 활용

2021년 현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는 지부 17개, 지회 199개가 소속되어 있다. 지부·지회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중도재활을 위해 점자, 보행, 정보화(스마트 기기, 컴퓨터), 일상생활훈련(요리, 의복구별, 지폐구별), 여가활동, 시각장애 역리학(사주팔자) 교육 등 다양한 중도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에서는 49개, 지자체에서는 100개 지회에 중도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중도재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행지



도서서비스를 체계적이며 정규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시각장애인복지관이 부족한 지부·지회에 보행훈련을 강화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의 독립보행 기술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한시련에서는 중도재활이라고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행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가능한 보행훈련을 공식적인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여 보행지도서비스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방에는 복지관이 없는 경우에 지회 프로그램을 통해 보행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참여자5).'

(3) 안내견학교의 1:1 훈련 시스템 도입

안내견은 보통 시각장애인의 안내견(Guide dogs for the Blind)를 말한다.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훈련된 시각장애인 보조견으로 시각장애인의 독립보행을 지원한다. 안내견학교에서는 시각장애인과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안내견이 선정되면 4주간의 1:1 교육 과정을 거친다. 교육기간중 2주 동안은 안내견학교에 마련된 숙소에서 지내면서 안내견의 일반 관리를 위한 기초교육을 받고 나머지 2주동안은 시각장애인의 주거지와 주요 보행지역을 중심으로 한 현지교육이 이루어진다. 이 기간동안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관계가 형성된다(삼성화재안내견학교, 2021). 이처럼 2주간 시행되는 시각장애인의 주거지 및 주요 보행지역내 훈련을 통해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보행기술을 익힐 수 있다. 이처럼 안내견학교의 사례를 기초로 보행지도서비스 개별 모델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안내견학교에서는 2주간 훈련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직접 안내견과 보행훈련을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안내견학교의 훈련 방식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유사하게 보행지도서비스도 안내견학교처럼 최대한 시각장애인이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지역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참여자2).'

5) 주제 5: 기존 제도 활용을 통한 보행지도서비스 확대

(1) 차등 근로지원서비스 적용

장애인 근로지원서비스는 직장생활에서 장애인이 수행하는 직무중 핵심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업무를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이다. 근로지원서비스의 시급은 8,720원이며 수어통역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청각장애인의 근로지원인의 시급은 10,464원이다. 이처럼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도 근로지원인이 보행지도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차등시급을 적용하여 시각장애인이 전문적인 보행지도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행지도사자격증이 있는 경우 시각장애인에게 보다 전문적인 보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러한 점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차등적으로 시급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미 수어통역사자격증이 차등 시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사례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보행지도사자격증 역시 이전 보다는 더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참여자5).'

(2) 대학내 캠퍼스 보행지도서비스 강화

시각장애인은 넓은 캠퍼스를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캠퍼스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다. 캠퍼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대학내 여러 건물의 위치와 이동거리 등을 익힐 수 있으며 독립적인 캠퍼스 생활이 가능하다. 이러한 캠퍼스 오리엔테이션은 주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며 오리엔테이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지도사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을 센터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 담당 직원의 경우 보행지도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가산점을 지급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교는 일반적으로 크기 때문에 1학년 초에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은 그냥 센터 직원이 지도하지만 만약 보행지도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습니다(참여자4).'

(3) 보행 관련 직종에 보행지도사 자격증 의무화

일반적으로 보행지도사는 시각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맹학교 등에 채용되어 보행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보행지도사 자격증 소지가 의무화되어있지 않아 보행지도사 자격증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미



국 텍사스에서는 시각장애 학생에게 보행능력평가나 보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행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도록하고 있다(State of Texas, 2021). 우리나라 역시 보행지도사 자격증 확대와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행 관련 직종에는 보행지도사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보행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처럼 일부 직종에는 자격증을 의무화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명문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현재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행지도사 자격증을 따려고 할 것입니다(참여자7).’

5. 시사점

보행지도사 자격제도 및 보행지도서비스 개선과 관련해 시각장애인 당사자와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보행지도사 자격제도와 관련해 기존 보행지도사 교육내용 중 시각중복장애인과 전맹시각장애인 보행지도 교육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증가하는 시각중복장애인의 수를 고려하여 시각중복장애인의 개별 특성에 적합한 보행지도 방법을 교재에 수록해야 한다. 그리고 언어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의사소통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하며 이들이 안전하게 보행지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해야 한다.

둘째, 실습 위주의 보수교육과 일정 시간 실습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실습은 보행지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신규 보행지도사가 적절한 양의 실습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보수교육을 통해서 이론이나 지식 전달을 위한 집합교육이 아니라 개별 보행지도사의 실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실습 위주의 보수교육을 편성해야 한다. 적절한 의무 실습 기간과 보수교육 시간 등은 미국이나 호주의 사례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 시각장애인 교육기관을 통해 보행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

를 들어, 맹학교, 안마교육 기관 등을 활용해 보행지도교육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각 교육기관과 추가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보행지도 표준화 교재를 제작하여 보행지도서비스를 원하는 시각장애인, 교사, 가족 등이 손쉽게 보행지도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해야 한다.

넷째, 시각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독립보행에 대한 인식교육이 필요하다. 보행지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행지도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하며 이러한 욕구는 시각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표현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맹학교, 안마교육 기관, 기타 시각장애인 복지관 등에서 독립보행의 중요성과 자립의 의미 등을 강조하여 보행지도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보행지도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기존 복지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근로지원서비스, 대학내 보행지도서비스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보행지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이러한 기존 복지제도의 활용은 보행지도서비스의 인프라 및 이용자 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보행지도사 자격제도 및 보행지도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행지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보행지도 관련 전문가 및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을 통해 보행지도사 활성화를 위해 보행지도사 교과내용 및 보행지도사 관리 개선, 보행지도 교육환경 개선, 보행지도서비스 인프라 확대, 기존 복지서비스 활용 등의 내용이 도출되었다.

1. 보행지도사 교과내용 및 보행지도사 관리 개선

1) 시각중복장애인 보행지도 교과내용 확대

현행 보행지도사 교과인 보행지도법의 세부 주제중 시각중복장애 보행지도법을 통해 시각중복장애의 일반적 특성과 이들을 위한 보행지도법을 제시하고 있다(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21). 그러나 현행 시각중복장애 보행지도법에서는 시각중복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보행지도법만 제시하고 있어 다양한 시각중복장애인의 특성과 세부적인 보행지도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미국 ACVREP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행지도사 13개 전문 영역에서도 시각중복장애인의 지도 뿐만 아니라 다문화 시각장애인의 지도도 전문 지식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각중복장애인 보행지도에 대한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ACVREP, 2021).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시각장애인 총 252,794명 중 2가지 이상 중복장애가 있는 시각장애인은 지체장애+시각장애 13,422명, 뇌병변장애+시각장애 5,853명이며, 3가지 이상 중복장애가 있는 시각장애인은 뇌병변장애+시각장애+언어장애 485명으로 시각중복장애 2가지와 3가지를 합한 총 수는 19,760명이다. 2017년 전체시각장애인 중 시각중복장애인은 7.81%에 해당한다(보건복지부, 2017). 이처럼 시각중복장애인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각중복장애인을 위한 보행지도법과 교과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시각장애와 지체장애, 시각장애와 뇌병변장애의 2가지 시각중복장애인 및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언어장애의 3가지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신체적·언어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보행지도 교과내용과 보행지도법을 추가해야 한다. 특히 언어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어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인 촉수어 등을 고려하여 보행지도법을 교육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전맹시각장애인을 위한 교과내용 확대

현행 시각장애의 이해 교과내용 중 보조기기 및 기술에서는 저시력시각장애인의 보조공학기기와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저시력시각장애인 대상 보조공학기기인 망원경 및 현미경 등이 소개되면서 망원경 배율 측정 등에 대한 문제도 출제되고 있다(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21). 그러나 실제로 보행지도의 주요한 대상은 저시력시각장애인보다는 전맹시각장애인인 경우가 많으며 망원경 배율 측정과 같은 문항은 현장에서 전맹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행지도사에게는 실용적인 내용은 아니다. 이처럼 저시력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관련 교과내용이나 문제 출제율을 조정하여 전맹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3) 보행지도 실습 의무화 및 실습위주 보수교육 강화

현재 보행지도사 자격증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하면 부여되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실기시험 통과를 위해 30시간의 보행지도 실습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필수는 아니다. 즉 응시자에 따라서는 30시간 실습교육을 참여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실기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증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적은 보행지도 실습만으로도 실기시험을 통과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보행지도는 이론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보행을 실제로 지도하거나 이해하는 실습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보행지도사 자격증을 부여함에 있어 일정 시간 실습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ACVREP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1(Category 1)은 보행지도와 관련된 전공자로 최소한 공인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350시간 보행지도



실습을 이수해야하며 ACVREP 보행지도사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기준 2(Category 2)는 경로A(Path A)는 보행지도 관련 저문 지식 13영역을 충족하는 보행지도 대학원 수준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하며 경로B(Path B)는 보행지도 관련 전문 지식 13영역을 충족하는 전미 정부 기관에서 공인한 보행지도 전문 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며, 350시간 보행지도 실습을 이수해야하며, ACVREP 보행지도사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ACVREP, 2021). 호주 OMAA의 경우에도 미국 ACVREP의 기준을 준용하여 350시간의 보행실습을 요구하고 있다(OMAA, 2021).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보행지도사의 실지 보행지도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보행실습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외국처럼 초기부터 350시간을 의무화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이에 준하는 적정 실습시간(30시간-100시간)을 설정하여 보행지도사의 실기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4시간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수교육의 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수교육 내용에 실습을 추가하여 집합교육을 통한 이론적 지식보다는 실용적인 현장 적용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ACVREP 자격은 5년마다 갱신하며 5년 주기로 100점의 보수교육 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호주 OMAA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ACVREP, 2021). 이처럼 보수교육의 양과 질을 보강하여 보행지도사가 실무기술을 익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4) 보행지도사 관리 전산화 및 웹사이트 운영 필요

보행지도사 정보를 통합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손쉽게 보행지도사와 보행지도서비스를 필요로하는 기관·개인과 연결이 필요하다. 현재는 보행지도사 관련 데이터 베이스가 미비하여 관련 정보를 얻는데 장시간 소요되거나 정보 전달도 원활하지 못하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행지도사 자격증을 관리하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에서 관련 정보를 전산화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고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해 정보를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행지도사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호주 OMAA는 OMAA에 등록된 보행지도사(OMAA Registered O&M Specialist)를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OMAA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 보행

지도사를 검색할 수 있다. 등록 보행지도사는 이름, 업무 기관, 활동 지역, 제공 서비스 등으로 검색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등록 보행지도사의 이름, 등록 번호, 성별, 연락처, 활동 지역, 교육 및 자격증 소유 여부, 학위 전공 분야, 제공 서비스 영역(보행지도, 안내견 동반 보행지도, 유아 보행지도, 시각중복장애 보행지도 등)과 관련된 사항을 검색할 수 있다(OMAA, 2021).

이러한 전산화된 관리 체계와 등록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선진화된 보행지도사 관리 체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보행지도사 관리 주체 및 보행지도서비스 이용자간의 원활하고 신속한 연계를 가능하게 한다.

2. 보행지도 교육환경 개선

1) 맹학교를 활용한 보행지도교육 강화

맹학교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학교교육을 포함해 재활교육, 직업교육, 일상생활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립생활에 필요한 보행교육은 미비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초등부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744시간-2176시간 교육하고 있으며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과 함께 창의적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별도로 보행교육은 포함되어있지 않다. 중학교의 경우 한학기에 578시간 교육하고 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으로 보행·독서를 한학기에 17시간 교육하고 있다. 고등학교 인문반과 이료반의 경우 한학기에 34단위 총 204단위를 이수하고 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에 자치·적응 1단위가 배정되어 있으나 보행교육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서울맹학교, 2021). 이처럼 보행은 시각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기본적인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맹학교에서는 주요한 교육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정규 교육과정을 통한 보행교육의 미비는 궁극적으로 보행기술을 습득하는데 한계가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학교교육이 조직적이며 중·장기적인 점을 고려한다면 정규 맹학교 교육과정에 보행을 추가하여 시각장애인이 보행에 보다 체계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시각장애 학생 교육을 규정한 텍사스 교육 규정(Texas Education Code



Specific to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s) Sec. 30.002에 의하면 시각장애 학생이 교실환경에 적응하고 학구(school districts)의 실용적이며 지속적인 교육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점자, 개념개발, 혹은 타 교과과목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 등과 같은 보상기술(compensatory skills), 보행, 사회관계기술,

교과계획, 광각기기를 포함한 보조공학, 자립기술, 여가활동, 자기결정을 포함한 교과를 주요 교과로 포함하도록하고 있다(State of Texas, 2021). 이처럼 우리나라도 시각장애인 교육에 있어 보행과 같은 실용적인 기술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시각장애인이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행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해야 한다.

<표 V-1> 맹학교 초등부 교육과정 시간표

□ 시간 편제

구분		2011 특수교육 교육과정					
		1 ~ 2		3 ~ 4		5 ~ 6	
교과 (군)	국어	국어 448		408		408	
	사회/도덕	210	238	272		272	
	수학	수학 256		272		272	
	과학/실과	120	136	204		340	
	체육	60	68	204		204	
	예술(음악/미술)	90	102	272		272	
	영어	즐거운생활 384		136		204	
창의적 체험활동		적응 80	102	204		204	
		90					
		336					
학년별 총 수업시간수		862	882	986	986	1088	1088
학년(군)별 총 수업시간수		1,744		1,972		2,176	

- 한 시간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
-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2년간의 기준 수업시수를 나타낸 것이며, 학기말에 국가기준 최소 수업 시수를 맞추기 위하여 변동시간표를 운영
- 학년군별 총 수업시간 수는 최소 수업 시수임
- 실과의 수업 시간은 5~6학년 과학/실과의 수업시수에만 포함함

<표 V-2> 맹학교 중등부 교과과정 시간표

□ 시간편제

구분			1학년(2019년 입학)		2학년(2018년 입학)		3학년(2017년 입학)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교과 (군)	국어(442)		85(5)	85(5)	68(4)	68(4)	68(4)	68(4)
	사 회 (역사포함) 도 덕 (510)	도덕	51(3)	51(3)			34(2)	34(2)
		사회			51(3)	51(3)	34(2)	34(2)
		역사			51(3)	51(3)	34(2)	34(2)
	수학(374)		51(3)	51(3)	68(4)	68(4)	68(4)	68(4)
	과 학/ 기술·가정/ 정보 (680)	과학(323)	51(3)	51(3)	51(3)	51(3)	51(3)	68(4)
		기술·가정 (238)	51(3)	51(3)			68(4)	68(4)
		정보(34)	34(2)	34(2)				
	체육(272)		51(3)	51(3)	51(3)	51(3)	51(3)	51(3)
	예 술 (음악/미술) (272)	음악	34(2)	34(2)	34(2)	34(2)		
		미술	34(2)	34(2)	34(2)	34(2)		
	영역(340)		68(4)	68(4)	68(4)	68(4)	68(4)	68(4)
	선택 (170) 10%감축	보건					17(1)	
		진로와 직업			34(2)	34(2)	17(1)	17(1)
필수적 체험 활동	자율/진로	자율/진로	17(1)	17(1)	17(1)	17(1)	17(1)	17(1)
	자 율	보행/독서	17(1)	17(1)	17(1)	17(1)	17(1)	17(1)
	동아리	동아리	17(1)	17(1)	17(1)	17(1)	17(1)	17(1)
		학교 스포츠클럽	17(1)	17(1)	17(1)	17(1)	17(1)	17(1)
학기당 수업 시수			578	578	578	578	578	578
주당 수업 시수			34	34	34	34	34	34

※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적용함.

※ 중학교 정보 과목은 3년간 34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하며, 선택교과(군)에서 과학/기술·가정/정보 교과(군)으로 편성되어 운영함(단, 기존 선택교과에서 운영하던 시수를 조정함, 학년은 제외).



<표 V-3> 맹학교 고등부(인문반) 교과과정 시간표

□ 시간 편제

교과영역	교과(군, 기준시수)	과목(2015개정)	1학년(2019년 입학)		2학년(2018년 입학)		3학년(2017년 입학)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기 초 (36→교과 (군) 미수단위180의 50%범위)	국 어 (32)	국어	4	4				
		문학			6			
		언어와 매체 심화국어				6		
		화법과 작문						6
		독서와 문법+					6	
	수 학 (20)	수학	3	3				
		수학I			4			
		수학II				4		
	영 어 (32)	확률과 통계					3	3
		영어	4	4				
		영어I			6			
		영어II				6	6	
		영어 독해와 작문						6
	한국사(6)	실용영어						
		한국사			3	3		
탐 구 (22)	사 회 (역사/도덕 포함, 10) (38)	통합사회	4	4				
		세계 지리			3	3		
		정치와 법						
		법과정치+					3	3
		경제					3	3
		사회?문화			3	3	3	3
		생활과 윤리						
	과 학(12) (16)	통합과학	3	3				
		과학탐구실험	1	1				
		생명과학I						
		생명과학II+						4
		화학I						
체 육(10)	화학II+					4		
	체육	2	2					
	운동과 건강			1	1			
	스포츠 생활							
	스포츠 문화+					2	2	
생 활?교양 (16)	예 술 (음악/미술, 10)	음악	2	3				
		미술	3	2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교양	기술?가정	3	3				
		일본어I			3	3		
참 의 적 체 질 활 동 (24)	자 율	논술			2	2		
		자치/적응	1	1	1	1	1	1
		독서	1	1	1	1	1	1
		과학	1	1				
	동 마 리 관 료	보건						1
		보안						1
		동마리	1	1	1	1	1	1
학기당 이수단위 학교자율과정 86 총 이수단위 204			정보/직업교육 1(정보) 34	1(정보) 34			1(직업) 34	34

※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적용함.
 ※ 공통 과목의 수학, 통합과학은 2단위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적용하여 각각 6단위로 편성할(과학탐구실험은 이수단위 총합 없이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진로 선택 과목에서 3개 과목(심화국어, 실용영어, 스포츠생활)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함.
 ※ *는 2011 특수교육 교육과정 미 적용된 30년에 해당하는 교과임.

<표 V-4> 맹학교 고등부(이료반) 교과과정 시간표

□ 시간 편제

교과영역 (필수 이수 단위)	교과(군)	과목(2015개정)	1학년(2019년 입학)		2학년(2018년 입학)		3학년(2017년 입학)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기 초 (30)	국 어 (14)	국어	3	3				
		문학			2	2		
		실용 국어 독서와 문법*					2	2
	수 학 (12)	수학	3	3				
		수학 I			2			
		수학 II				2	2	
	영 어 (14)	영어	3	3				
		영어 II *					2	2
		영어회화 실용영어			2	2		
탐 구 (12)	사 회 (역사/도덕/교양) (9)	한국사			3	3		
		통합사회	3	3				
	과 학 (8)	생물과 윤리					3	
		통합과학 생명과학 I 생명과학 II *	1	1	2	2		2
체 육?예술 (14)	체 육(8)	체육	2	1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스포츠 문화*			2	2		
		음악	3				1	
	예 술 (음악/미술, 6)	미술		3				
생활?교양 (10)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교양	기술?가정 일본어 I 실용경제			2	2		2
		해부?생리 방리	5	5			2	2
이 료 (86)	기초 의학 (18)	해부?생리 방리 이료보건	5	5			4	
		안마?마사지?지압	2	2				4
		전기 치료			4			
	이료 이론 (18)	한방			3	3		
		침구				4		

	임상 의학 (14)	진단					2	2
		이료 임상					5	5
	실기 실습(43)	이료실기실습	5	6	8	8	8	8
창의적 체험활동 (24)	자 율	자치/적응	1	1	1	1	1	1
		독서	1	1	1	1	1	1
		예술	1(미술)	1(음악)				
		보건						1
	동아리	동아리	1	1	1	1	1	1
	진 로	정보/직업교육			1(정보)	1(정보)		1(직업)
	학기당 이수단위		34	34	34	34	34	34
	학교자율과정 28							
	총 이수단위 204							

※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적용함.

※ 공통 과목은 2단위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적용하여 모든 공통 과목을 8단위로 편성함.

※ 통합과학 과목의 경우 1학년에 2단위, 2학년에 4단위를 이수하도록 편성함.

※ 이료 교과는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의해 기존 104단위에서 98단위로 단위 수를 조정하여 편성함.

※ *는 '2011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적용된 학년에 해당하는 교과임.



2) 안마교육과정을 통한 보행교육 강화

안마란 안무(쓸기), 유연(주무르기), 압박(누르기), 진전(떨기), 고타(두드리기), 곡수(구부림 손 기술), 운동(자동·타동·운동과 교정), 견인(잡아당김), 교정법 등 9대 안마 수기요법을 피시술자의 인체부위와 질병에 따라 선택적으로 각종 질병을 예방, 건강을 유지하는 시술행위이다. 안마가 가진 물리적 작용은 모든 혈관을 단련하고 체세포를 강화, 각 신경을 조정하여 호르몬의 분비를 왕성하게 할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육체를 강건하게 하고 회춘시킨다. 이처럼 안마는 체질을 개선하고 저항력을 늘려 자연 치유력을 증진시킴으로서 질병을 퇴치하고 예방한다. 이러한 안마행위는 특히 시각장애인이 비시각장애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촉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치료상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과민대, 압진점 및 찔진점 등을 지사하는데 탁월한 소질을 가지고 있다(대한안마사협회, 2021).

안마사는 의료법 제82조(안마사), 보건복지부령 제388호(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안마사의 자격인정)에 의해 교육받은 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안마사는 인체의 질병예방과 건강유지라는 중 차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부, 생리 병리, 보건안마, 마사지, 지압, 전기치료, 한방, 침구, 이료임상, 진단, 실기, 실습 등의

의약과목을 교육기간동안 총2000여 시간 이상 배우고 있다(대한안마사협회, 2021). 그러나 안마사 교육의 대부분은 의료교육에 치중되어 있으며 안마사가 직업활동에 필요한 보행, 이동 등과 관련된 자립기술은 배제되어 있다. 안마사가 업무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독립적인 이동을 위해서는 기초적인 보행기술이 필요하며 보행교육을 통해 안마사의 자립생활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표 V-5> 안마사 자격 취득교육 과정

과목	단위	시간
해부생리	15	301
병리	6	86
이료임상	4	301
안마, 마사지, 지압	4	86

전기치료	6	85
한방	6	173
총계	41	1,032

3. 보행지도서비스 인프라 확대

1) 시각장애인 지부·지회 중도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사업에 보행훈련 강화

2021년 현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는 지부 17개, 지회 199개가 소속되어 있다. 지부·지회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중도재활을 위해 점자, 보행, 정보화(스마트 기기, 컴퓨터), 일상생활훈련(요리, 의복구별, 지폐구별), 여가활동, 시각장애 역리학(사주팔자) 교육 등 다양한 중도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에서는 49개, 지자체에서는 100개 지회에 중도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중도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사업은 복지서비스가 부재한 지역에 거주하며, 후천적 장애로 사회적응이 어렵고 심리적 부적응을 겪고 있는 중도시각장애인을 발굴하여 상담과 기초재활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직업훈련 및 상위교육과정으로 연계하고, 중도시각장애인이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한 사업지역은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소재하지 않는 도지부와 재활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 농어촌 및 지방도시에 소재한 지회이다. 각 지회는 중도시각장애인 재활교육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며 6개 과목(점자교육, 보행교육, 정보화교육, 역리학교육, 일상생활훈련, 여가활동훈련) 중 1과목을 선택하여 과목당 50강의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교육을 실시한다(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21).

이러한 중도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사업중 보행교육의 비중을 두어 시각장애인이 보행교육을 받을 기회를 높여야 한다. 특히 시각장애인복지관이 부족한 지방에 위치한 지부·지회에 보행교육을 강화하여 수도권 이외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의 독립보행 기술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2) 시각장애인자립생활·재활센터 확대

시각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단순히 몇가지 개별 능력이 필요하기보다는 여러 능력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 시각장애 발생 후 장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보행, 점자, 정보화기술, 대인기술, 일상생활기술, 직업기술 등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며 이러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혹은 시각장애인재활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경험하는 신체적 및 정신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역사회 속에서 사회통합과 자립생활을 달성하기 위해 일련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2021). 현재 전국적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약210개가 설립되어 있으나 거의 대부분이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10개(4.7%) 정도에 불과하다. 일반적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동료상담, 권익옹호, 자립생활기술교육, 정보제공 및 의뢰를 주로 제공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보행, 점자, 정보화교육, 일상생활훈련, 기초직업훈련, 보조기기사용 등과 관련된 특성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

시각장애인복지관 역시 시각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장애인복지관 252개 중 시각장애인복지관은 15개(5.9%)에 불과하다(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2021). 이러한 시각장애인 전문 서비스 기관의 부족은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보행을 포함해 시각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 확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크리스콜재활센터(Criss Cole Rehabilitation Center, CCRC)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문 재활 기관으로써 시각장애인이 3개월에서 1년정도 센터에 부속되어있는 기숙사에서 기숙하면서 매일 보행, 점자, 보조기기 활용, 요리 및 식사준비, 재정관리, 청소, 목공, 여가, 재활상담, 진로상담, 기초직업훈련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CCRC, 2021). 특히 CCRC에서 제공하는 보행서비스는 1:1식의 소규모로 진행되며 초기에 시각장애인의 이동능력을 평가하여 1단계-3단계의 단계별로 보행서비스를 제공한다. 1단계의 경우에는 주당 3회이상 보행서비스를 받으며 기초적인 지팡이 사용법, 실내보행, 건물 인근 보행 등에서 시작하여 점

진적으로 수준과 난이도를 높여 시내보행, 대중교통 이용, 원거리 보행 등을 실시한다. 전통적인 지팡이 보행을 포함하여 보행 보조기구나 보행 모바일 앱 등도 활용하여 시각장애인의 개별 특성에 맞추어 보행서비스를 제공한다(CCRC, 2021). 이처럼 우리나라도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확대하여 시각장애인이 자립에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

<표 V-6> 미국 CCRC 주요 서비스 종류

서비스 분류	세부 서비스 종류
전문훈련프로그램(Proficiency Training Program)	보행(지팡이, 안내견, 전자식 이동 기기, 모바일 앱 등), 점자 일기 및 쓰기, 요리, 청소, 목공, 레크리에이션, 세미나 등
진로중심훈련프로그램(Career Focus Training Program)	구직훈련, 직업실습, 자영업 준비 훈련, 대학 생활 훈련, 직장내 기술 훈련
기타 훈련	집단상담, 직업캠프, 대학준비훈련

4. 기존 복지서비스 활용

1) 보행지도사 자격증 소지 근로지원인 차등 급여

장애인 근로지원서비스는 직장생활에서 장애인이 수행하는 직무중 핵심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업무를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이다. 근로지원서비스의 시급은 8,720원이며 수어통역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청각장애인의 근로지원인의 시급은 10,464원이다. 이처럼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도 근로지원인이 보행지도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차등 시급을 적용하여 시각장애인이 전문적인 보행지도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보행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선발

현재 다수의 보행지도사들이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채용되어 있으나 보행지도사 자격증 소지 여부는 보행지도 업무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이에 보행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채용 과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보행지도사 자격증 소지 여부를 의무화하여 보행지도사 자격증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각장애인복지관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에게 보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보행지도사 자격증 소지 여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은 캠퍼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대학내 여러 건물의 위치와 이동거리 등을 익힐 수 있으며 독립적인 캠퍼스 생활이 가능하다. 이러한 캠퍼스 오리엔테이션은 주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며 오리엔테이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지도사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을 센터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 담당 직원의 경우 보행지도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가산점을 지급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각장애 학생 교육을 규정한 텍사스 교육 규정(Texas Education Code Specific to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s) Sec. 30.002에 의하면 시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보행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된 보행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에 의해 평가받도록 하고 있으며 시각장애 가정, 지역사회, 학교 등에서 보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공인된 보행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tate of Texas, 2021). 이처럼 보행지도사 자격증 소지 여부를 명문화하여 보행지도사 자격증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행지도사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켜 많은 보행지도사들이 실제 현장에서 보다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영일 (2010). 시각장애인복지론. 서울: 집문당.
- 김영일, 이태훈, 김호연, 조성재, 김대식, 이성진 (2013). 시각장애인 보행의 이론과 실제.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지혜, 오충원, 남이해 (2021). 시각장애인의 독립보행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49-159.
- 김호연 (2005).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 전문화 방안 토론회.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노가은, 이경진, 윤상일, 윤다연, 강병권, 김선행 (2021). 딥 러닝과 실시간 영상처리를 이용한 시각장애인 보행보조기구. 한국정보기술학회 2021년도 하계종합학술대회.
- 대한안마사협회 (2021). 안마사제도현황. 서울: 대한안마사협회.
- 보건복지부 (2017). 장애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 박세영, 박주경, 류혜림, 이향인, 이경미 (2021). 시각장애인을 위한 상황인지 보조 IoT 장치 및 보행자 길안내 서비스 앱 개발.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21(2), 10-25.
- 서울맹학교 (2021). 서울맹학교 교과과정. retrived from <http://bl.sen.sc.kr>
- 일본보행지도사협회 (2021). 보행지도사 자격 기준. 동경: 일본.
- 삼성화재안내견학교 (2021). 안내견 교육 과정. retrived from <https://mydog.samsung.com>
- 한국농아인협회 (2021). 수어통역사 자격 제도. 서울: 한국농아인협회.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21a). 보행지도사 자격 제도. retrived from www.kbuwel.or.kr/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21b). 점역교정사 자격 제도. retrived from www.kbuwel.or.kr/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2021). 2021년도 장애인복지관 현황. 서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한국언어재활사협회 (2021). 언어재활사 자격제도. 서울: 한국언어재활사협회.



홍수희, 구유리 (2021).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독립보행을 위한 통합 서비스 플랫폼 연구 -대중교통 환승 경험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7(2), 503-520.

Academy for Certification of Vision Rehabilitation and Education Professionals (2018). Orientation and mobility specialist certification handbook. Tucson, AZ: Authors.

Blasch, B., Welsh, R., & Wiener, W. (2010). Foundations of orientation and mobility. Louisville, KY: American Printing House for the Blind.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2021). About the program. retrived from <http://www.cil.org/>

Creswell, J. (2003). Designing and conducting mixed methods research. New York, NY: Sages.

Criss Cole Rehabilitation Center (2021). CCRC programs overview. Austin, TX: Authors.

Duquette, J., & Baril, F. (2013). Factors influencing work participation for people with a visual impairment. Quebec, Canada: Institut Nazareth et Louis-Braille.

Orientation and Mobility Association of Australasia (2021). Orientation and mobility specialist. retrived from <https://www.omaaustralasia.com>

State of Texas (2021). Texas Education Code (Specific to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s, Sec. 30.002). Austin, TX: Authors.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2021). Handbook of Orientation and mobility specialist, Sydney: Authors.

부록

조사표 번호				
ID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 자격제도 및 보행지도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 실태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에서는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 자격제도 및 보행지도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정책 개선방안 및 대안을 수립하고 개발된 정책집행에 따른 결과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데 기초가 되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보행지도사 자격제도 및 보행지도서비스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보행지도사를 대상으로 현 자격증 제도의 현황·개선점·발전방향 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보행지도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을 통한 모든 응답은 오직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응답자에 관한 일체의 신상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히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문의 및
연락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연구개발팀 서원선 부연구위원
전 화 : 02-3433-0658
E-mail : wonsunseo@koddi.or.kr



A. 인적 사항

1. 성별은 무엇입니까?	___ ① 남 ___ ② 여
2.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 ① 20세-29세 ___ ② 30세-39세 ___ ③ 40세-49세 ___ ④ 50세-59세 ___ ⑤ 60세이상
3.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___ ① 강원도 ___ ② 경기도 ___ ③ 경상남도 ___ ④ 경상북도 ___ ⑤ 광주광역시 ___ ⑥ 대구광역시 ___ ⑦ 대전광역시 ___ ⑧ 부산광역시 </div> <div> ___ ⑨ 서울특별시 ___ ⑩ 세종특별자치시 ___ ⑪ 울산광역시 ___ ⑫ 인천광역시 ___ ⑬ 전라남도 ___ ⑭ 전라북도 ___ ⑮ 제주특별자치도 ___ ⑯ 충청남도 ___ ⑰ 충청북도 </div> </div>
4.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고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② 전문대학 졸업(중퇴 포함) ③ 대학교 졸업(중퇴 포함) ④ 대학원 석사 졸업(수료 포함) ⑤ 대학원 박사 졸업(수료 포함)
5. 귀하가 소지한 자격증은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___ ① 보행지도사 ___ ② 사회복지사 ___ ③ 보육교사 ___ ④ 작업치료사 ___ ⑤ 장애인재활상담사 ___ ⑥ 심리상담사 ___ ⑦ 보조공학사 ___ ⑧ 교원자격증 ___ ⑨ 기타 ()
6. 귀하는 보행지도사 자격을 취득한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___ ① 1년 미만 ___ ② 1년-3년 미만 ___ ③ 3년-5년 미만 ___ ④ 5년-10년 미만 ___ ⑤ 10년-15년 미만 ___ ⑥ 15년 이상

7. 현재 현장에서 보행지도사로 일하고 계십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일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② 일하고 있지 않다 → 7-1번으로 가십시오.
7-1. 일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보행지도사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서 <input type="checkbox"/> ② 보행지도사의 급여가 낮아서 <input type="checkbox"/> ③ 보행지도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서 <input type="checkbox"/> ④ 기타 ()
8. 현재까지 귀하의 보행지도사 현장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1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② 1년-5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③ 5년-10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④ 10년 이상
9. 현재 보행지도사로 일하고 있다면 귀하가 일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학교 등 교육기관 종사 <input type="checkbox"/> ② 사회복지 관련 기관(복지관, 자립생활센터 등) 종사 <input type="checkbox"/> ③ 사회복지 관련 단체(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종사 <input type="checkbox"/> ④ 공공기관(공무원 등) 종사 <input type="checkbox"/> ⑤ 상담 및 심리상담서비스 관련 기관 종사 <input type="checkbox"/> ⑥ 프리랜서 <input type="checkbox"/> ⑦ 학교 재학중(학생) <input type="checkbox"/> ⑧ 비활동(자원봉사)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
10. 귀하가 보행지도사 자격에 응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현 업무에 필요해서 <input type="checkbox"/> ② 향후 이직에 필요해서 <input type="checkbox"/> ③ 장애 관련 학과를 졸업해서 <input type="checkbox"/> ④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11. 보행지도를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위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input type="checkbox"/> ① 시각장애인의 독립보행 지원 <input type="checkbox"/> ②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input type="checkbox"/> ③ 시각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input type="checkbox"/> ④ 기타 ()
12. 보행지도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위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input type="checkbox"/> ① 보행지도사로서 자신의 능력 부족 <input type="checkbox"/> ② 보행지도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낮은 신뢰 <input type="checkbox"/> ③ 시각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 <input type="checkbox"/> ④ 보행지도 서비스 제공 기관의 부족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



B. 보행지도사 근무현황

1. 보행지도사로 알하기 위해 어떠한 전공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 응답 가능)

- ☐ ① 보행지도 관련 전공
- ☐ ② 장애인 관련 전공
- ☐ ③ 사회복지 관련 전공
- ☐ ④ 특수교육 관련 전공
- ☐ ⑤ 심리/상담 관련 전공
- ☐ ⑥ 보건/의료 관련 전공
- ☐ ⑦ 교육 관련 전공(특수교육 제외)
- ☐ ⑧ 행정 관련 전공
- ☐ ⑨ 직업/직업제할 관련 전공
- ☐ ⑩ 전공은 상관없다
- ☐ ⑪ 기타 ()

2. 보행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필요 없다
- ☐ ② 필요 없다
- ☐ ③ 필요하다
- ☐ ④ 매우 필요하다

3. 보행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어떠한 교육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 응답 가능)

- ☐ ① 시각장애인 이해를 위한 교육
- ☐ ② 전문 보행지도 테크닉과 관련된 이론 교육
- ☐ ③ 전문 보행지도 테크닉과 관련된 실습
- ☐ ④ 전반적인 복지기관 업무/행정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
- ☐ ⑤ 기타 ()

3-1. 현장에서 보행지도사로 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추가적인 교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작성)

4. 보행지도 현장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보행지도사가 배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보행지도사 자격증 유무에 따라서
- ☐ ② 대학 전공에 따라서
- ☐ ③ 현장 경력에 따라서
- ☐ ④ 직무분석이나 인성/적성검사에 따라서
- ☐ ⑤ 잘 모르겠다
- ☐ ⑥ 기타 ()

5. 보행지도 현장에서 보행지도사의 능력에 따라 업무가 적절하게 할당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 ⑤ 잘 모르겠다

6. 다음 중 보행지도 분야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순서대로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① 보행지도사 수가 늘어나야 한다
② 보행지도 수당이 신설되어야 한다
③ 보행지도사를 위한 보수교육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④ 시각장애인과 보행지도사 간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⑤ 보행지도가 활동지원제도와 같이 바우처 사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⑥ 보행지도사가 취업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하여 취업기회를 넓혀야 한다
⑦ 보행지도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⑧ 지역/지방 생활이동지원센터의 보행지도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⑨ 시각장애인과 보행지도사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⑩ 회기당 보수를 현실적으로 높여야 한다
⑪ 보행지도의 위험을 고려하여 상해보험 제공 등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⑫ 기타()



C. 보행지도사 자격 검정 개선 방안

1. 필기시험이 개선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현행 필기시험을 유지한다
- ☐ ② 현행 필기시험 난이도를 낮춘다
- ☐ ③ 현행 필기시험 난이도를 높인다
- ☐ ④ 현행 필기시험 내용의 범위를 좁힌다
- ☐ ⑤ 현행 필기시험 내용의 범위를 넓힌다
- ☐ ⑥ 기타 ()

1-1. 필기시험에 포함되어야 하거나 현재 있는 내용중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2. 실기시험이 개선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현행 실기시험을 유지한다
- ☐ ② 현행 실기시험 난이도를 낮춘다
- ☐ ③ 현행 실기시험 난이도를 높인다
- ☐ ④ 현행 실기시험 내용의 범위를 좁힌다
- ☐ ⑤ 현행 실기시험 내용의 범위를 넓힌다
- ☐ ⑥ 기타 ()

2-1. 실기시험에 포함되어야 하거나 현재 있는 내용중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 보행지도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보행지도 관련 학부 혹은 대학원 과정 신설, 보행지도 양성 교육과정만 이수 후 자격증 발급, 보행지도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등).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 자격제도 및 보행지도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시각장애인용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에서는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 자격제도 및 보행지도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써 장애인정책 개선방안 및 대안을 수립하고 개발된 정책집행에 따른 결과를 수집하고 평가하는데 기초가 되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FGI의 목적은 보행지도사 및 보행지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보행지도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있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적 의견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보행지도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FGI를 통한 모든 응답은 오직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응답자에 관한 일체의 신상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히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문의 및 연락처	<p>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연구개발팀 서원선 <u>부연구위원</u></p> <p>전 화 : 02-3433-0658</p> <p>E-mail : wonsunseo@koddi.or.kr</p>
-------------	--



I. 참여자 인적사항

1. 성별	___① 남 ___② 여		
2. 나이	___① 20세-29세 ___② 30세-39세 ___③ 40세-49세 ___④ 50세-59세 ___⑤ 60세-69세 ___⑥ 70세 이상	3. 장애정도	___① 중증 ___② 경증
4. 보행지도서비스 이용 기간	___① 1개월-6개월 ___② 6개월-1년 ___③ 1년-3년 ___④ 3년 이상		

II. 연구개요 및 참석자 소개(시작질문)

1. 본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2. 본 FGI 참석자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3. 본 FGI의 진행방법(참여자 순번부여, 익명성 보장, 의견제시 방법, 의견제시 독점 금지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III. 보행지도서비스 관련 문제점 소개(도입질문)

1. 보행지도서비스 제공 현황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2. 현행 보행지도서비스 체계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IV. 보행지도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FGI 참여자의 의견 청취(전환질문)

1. 과거에 이용했던 보행지도서비스(이용 기간, 이용 장소, 이용 사유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용했던 보행지도서비스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3.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시각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V. 보행지도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주요질문)

1. 보행지도서비스와 관련된 현 제도·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 그러한 문제점의 주된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보행지도서비스 개선을 위해 정부(보건복지부), 시각장애인 기관 및 단체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VI. FGI 정리 및 종료(마무리 질문)

1. 본 FGI의 목적 및 필요성을 간략히 요약하겠습니다.
2. 본 FGI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겠습니다.
3. 요약한 내용에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FGI를 종료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 자격제도 및 보행지도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실무담당자용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에서는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 자격제도 및 보행지도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써 장애인정책 개선방안 및 대안을 수립하고 개발된 정책집행에 따른 결과를 수집하고 평가하는데 기초가 되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FGI의 목적은 보행지도사 및 보행지도서비스에 대한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보행지도서비스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적 의견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보행지도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FGI를 통한 모든 응답은 오직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응답자에 관한 일체의 신상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히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문의 및
연락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연구개발팀 서원선 부연구위원
전 화 : 02-3433-0658
E-mail : wonsunseo@koddi.or.kr

I. 참여자 인적사항

1. 성별	___ ① 남 ___ ② 여	
2. 나이	___ ① 20세-29세 ___ ② 30세-39세 ___ ③ 40세-49세 ___ ④ 50세-59세 ___ ⑤ 60세-69세 ___ ⑥ 70세 이상	
3. 전문활동 영역 및 활동기간	___ ① 의료 관련 영역 ___ ② 장애인 복지 관련 영역 ___ ③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영역 ___ ④ 장애인 권익옹호 관련 영역 ___ ⑤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영역 ___ ⑥ 기타 영역	

II. 연구개요 및 참석자 소개(시작질문)

1. 본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2. 본 FGI 참석자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3. 본 FGI의 진행방법(참여자 순번부여, 익명성 보장, 의견제시 방법, 의견제시 독점 금지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III. 보행지도사 자격 관련 문제점 소개(도입질문)

1. 보행지도사 자격 현황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2. 현행 보행지도사 자격증 제도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IV. 보행지도사 대상 설문결과에 대한 FGI 참여자의 의견 청취(전환질문)

1. 설문결과 보행지도 업무 수행 시 가장 힘든 점은 ...입니다. 보행지도사가 느끼는 이러한 어려움의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직무를 수행하는데 ...정도의 교육수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수준이 현장에서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행지도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4. 보행지도 분야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를 제시하였습니다. 설문결과에서 제시된 사항이 현장에서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V. 보행지도사 자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주요질문)

1. 보행지도사 자격 활성화를 위한 현 제도·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 그러한 문제점의 주된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보행지도사 자격 활성화를 위해 정부(보건복지부), 시각장애인 기관 및 단체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VI. FGI 정리 및 종료(마무리 질문)

1. 본 FGI의 목적 및 필요성을 간략히 요약하겠습니다.
2. 본 FGI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겠습니다.
3. 요약한 내용에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FGI를 종료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 자격제도 및 보행지도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

발 행 일 : 2021년 10월

발 행 인 : 최경숙

발 행 처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5층

Tel. 02-3433-0600

Fax. 02-3433-9567

<http://www.koddi.or.kr>

ISBN 978-89-6921-420-1 93330

※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무단 복사하는 것을 금합니다.